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내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1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25일)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만해 스님 영화·뮤지컬 다방면 선양사업 기대

홍성군 · 성북구, 3.1운동 100주년 맞아 전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전개된 3.1운동이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를 대표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지자체들의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만해 스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와 뮤지컬 제작, 생가지 개발, 만해로드 순례 등 '만해 한용운'이라는 인물의 발자취를 더듬는 성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중문화로 만나는 만해 스님

먼저 만해 스님의 출생지인 충남 홍성군은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 제작을 추진 중이다. 영화 제목은 만해 스님의 대표작 시와 같은 '님의 침묵'이다. 홍성 출신으로서 TV드라마 '토지' 총감독을 비롯해 극영화 '내 나이가 어때서' 감독 등을 맡은 ㈜시네마서울 대표 한명구 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의 중심인물인 만해 스님 역은 총 4명의 배우가 소화할 예정이다. 아역은 이준서 군, 소년역은 장재원 군이 맡았다. 다만 청년과 성년기는 외모변화가 크지 않아야 관객들의 괴리감을 낮출 수 있어 캐스팅을 조율 중이다. 성년역에는 배우 기주봉 · 안병경 · 홍석연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해 스님 모친 역은 '국민엄마'로 불리는 정혜선 씨가 맡았다. 영화는 지난달 홍성군 만해 스님 생가지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광복절, 늦어도 올해 개봉을 목표로 한다.

한명구 감독은 1월 23일 본지에 "오래 전부터 동향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고 싶었다"며 "만해 스님 고증을 위해 생가와 만해기념관, 백담사 등을 방문하며 자료를 모았다. 2월 중 제작발표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비는 홍성군뿐만 아니라 만해 스님의 발길이 닿은 인제군(출가지 백담사), 고성군(수행지 건봉사), 서울 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 · 성북구(입적지 심우장)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함께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군은 이와 함께 만해 스님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고자 2억 원을 들여 뮤지컬 제작에도 나선다. 한국음악협회 충남지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제작을 마치고, 8~10월 광복절과 홍성역사인물축제 등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5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한용운 생가 야외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가 옆 만해문학체험관 아래쪽에 심우장 · 서대문형무소 등 만해 스님과 관련된 장소를 20분의1 크기로 줄여 전시하고, 만해 스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를 중심으로 조경해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기미독립선언 기념비 건립사업을 통해 만해 생가터에 독립선언비를 세워 독립운동의 정신과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데 힘쓴다.

심우장 국가문화재 지정 기대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해 스님의 유택 '심우장'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승격 심사결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1차 심사는 마쳤으며, 문화재청의 2차 심사만 남았다. 성북구는 앞서 심우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화재청의 심사결과는 2~3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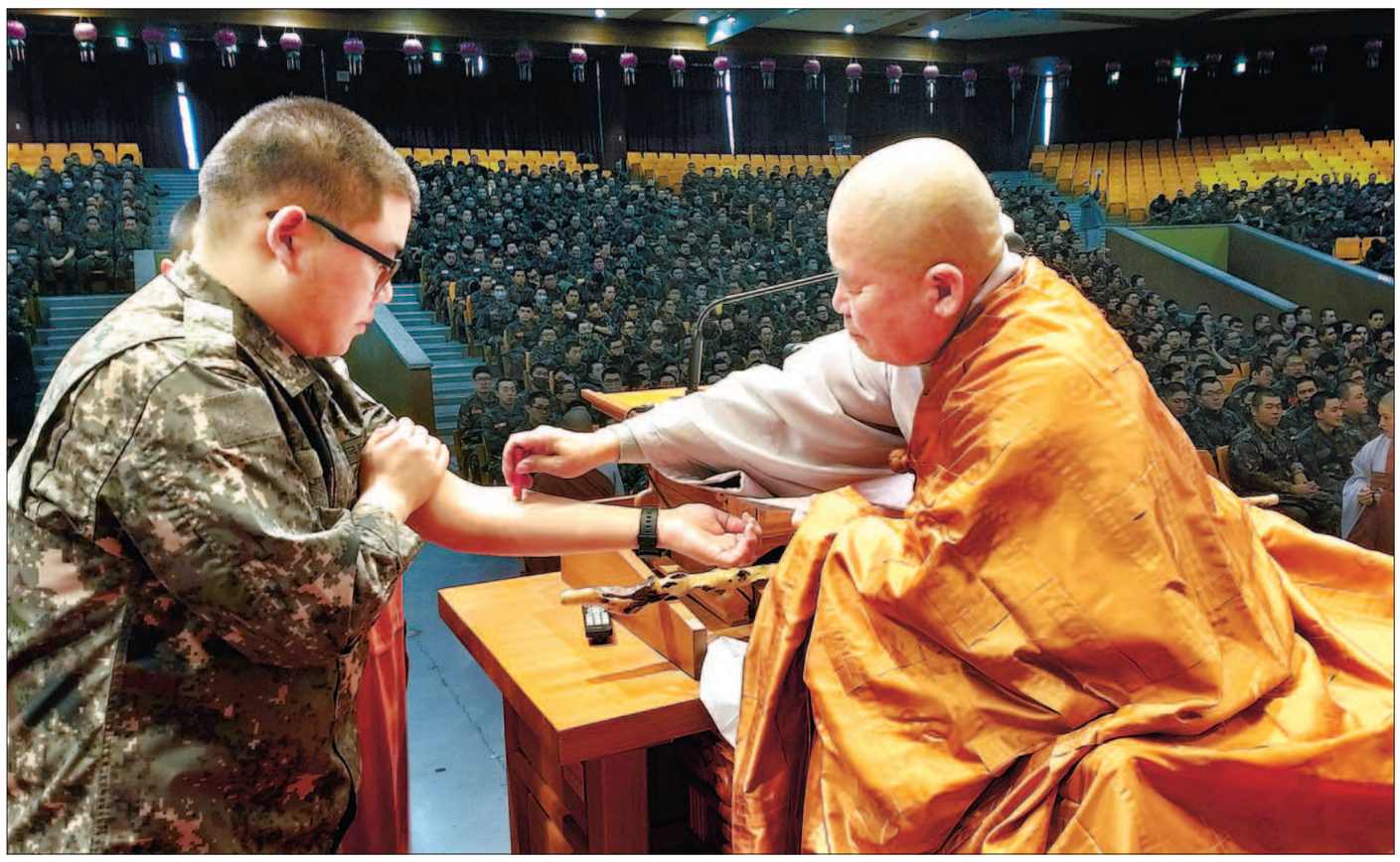
성북구는 심우장이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해 심우장 일대 10필지(약 530평)에 걸쳐 '만해 한용운 기념관 및 독립공원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기념관에는 문학관과 도서관 등이 들어서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만해산책공원부터 심우장까지 이어지는 독립공원을 조성해 근 · 현대 역사문화 허브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구는 지역출신 독립운동가가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선양사업이 계획되고, 만해 한용운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며 "3월 1일에는 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북구는 6개 지자체가 모여 조직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오는 8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 만해로드 대장정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만해로드는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관하며, 40여 명의 대학생과 2박3일간 만해 스님의 출생과 문학, 독립운동, 수행, 입적 등과 관련된 유적지를 돌아보는 행사다.

영화 '님의 침묵' 촬영 시작
'토지' 한명구 감독 메가폰
2월 중 제작발표회서 소개

만해 스님 생가 주변 개발도
관광객 위한 전시 · 공원 조성
대학생 '만해로드' 8월 개최



佛心과 함께 활기찬 군생활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월 1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올해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서는 2200여 장병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다시 태어났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날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7회 논산육군훈련소 수계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수계사로 장병대표에게 연비하는 모습. **글=노덕현 기자, 사진=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회성 정사 "시대 맞는 '새불교 운동' 전개"

진각종, 신년기자회견서
37개 종책 과제 발표해

스리랑카 · 네팔 교육 불사 추진
〈진각교전〉 올 연말에 재발간
위성도시에 심인당 4~5곳 신설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불교의 가치철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입니다. 특히 진각종은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세의 정화와 안락을 강조합니다. 그러다보니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며 이를 주요 방편으로 교화 활동을 펼치죠. 그런 취지에서 진각종의 종책 방침인 새불교 운동의 취지에 맞춰 올해는 37개의 종책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사진>는 1월 24일 하월곡동 총인원 4층 회의실서 '2019년 신년 종책안'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 · 포교 · 교육 · 복지 등 37개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회성 정사는 "우선 현대적인 불교에 걸맞는 교법을 위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문명을 이끄는 데 바탕을 둔 포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교구 및 각 심인당의 교화역량 강화에 치중하면서, 국제 교화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성 정사는 문화 부문의 과제도 언급했다.

"진각종이 밀교종단이어서 밀교의 복원 쪽으로 문화사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밀교문화 전승을 위해, 2층에 문화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밀교문화 사업을 펼쳤는데, 올해 3월 말로 모두 끝납니다. 전자, 학술 등 많은 자료들이 완비됐죠. 올해는 우리나라서 단절된 전통 밀교 의식 중에 두 가지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문두루법을 복원 전시했습니다. 이 문두루비법은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관정경)〉에 설해진 밀교 작법인데, 〈삼국유사〉에는 신라 명랑법사가 다섯 방위에 신상을 세우고 12명의 승려와 비법을 행했고, 그 신이로 당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밀교 작법입니다. 아울러 밀교의 기도 의식인 호마법도 복원할 생각입니다. 고려시대에도 호마법이 있었는데 밀교가 단절되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진각종서 다시 호마법을 재현하고자 여러 의식 관련 자료들을 모을 것입니다."

회성 정사는 교육 분야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올해는 스리랑카와 네팔의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포교소가 있는 국제학교에 자본을 들여서 교육의 메카로 키울 예정이고, 네팔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유치원과 법당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적으로는 승려 교육 다양화를 위한 승려연수 등도 많이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성 정사는 남북불교 교류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다. "지난해 10월 중국서 조불련 위원장을 만났죠. 남북불교 교류의 핵심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맞춰 도와주고, 사찰 복원을 해주어 불교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계사, 영통사가 그 좋은 예이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더 좋아지면 다시 만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편 진각종은 30년 전에 제작된 〈진각교전〉의 수정 보완을 거쳐 올 연말 재 발간할 계획이며, 현 시대에 맞는 의식도 재정비 할 예정이다. 또한 40~50년 된 도심 심인당 정비와 함께 위성 도시 4~5곳에 심인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2년마다 펼치는 서원가(찬불가) 사업에도 역시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총장 예비후보 소견 발표 현장 A3 | 동국대 19대 총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A4~5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모든 학과 공통]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제출방법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Tel 02) 745-2030 / 교학과장 010-7236-0900

교육비 안내
전형료 5만원 | 입학금 20만원 | 등록금 학기 당 100만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

“승가교육 개혁 지속 기반 수립”

조계종 교육원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지난 10년간 진행된 승가교육 개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응 스님이 밝힌 올해 사업 계획은 그간 진행돼 온 승가교육 개혁의 정착 · 지속 기반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현응 스님은 신년기자회견문에서 “교육원장 소임을 맡았던 지난 9년간의 핵심적 노력은 현대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교육과정 개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여전히 중국 수 · 당시대 형성된 불교관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표현언어도 한문 언어가 강세지만 서서히 변화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2600년 전통의 불교가 새롭게 개편된 승가교육을 통해 점차 현대와 당대중생을 만나게 될 때 시대에 부응하는 교화의 자비방편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임 마지막 해인 올해의 교육원 사업도 ‘불교의 현대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비실현’이라는 승가교육개혁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가교육 개혁은 계속된다”는 이 같은 기조는 올해 교육원 사업에도 반영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봉행되는 ‘교육불사 후원법회’다. 당시 모연된 승가교육기금으로 6~7대 교육원 집행부는 장학금, 교직자 연구비, 승려연수, 학인대회 등 원활한 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승가교육기금은 전부 소진됐고, 기금 모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1월 23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응 스님 임기 마지막 해
승가교육 내실화 · 정착 방점
후원법회 · 교육기관 특강도
승가결사체 연수 인증 확대
대학원 졸업성과물 의무 제출

임기 마지막 해에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후임 교육원장과 집행부가 교육개혁불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현응 스님의 의지다. 후원법회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현응 스님은 오는 3~4월까지 직접 전국 40여 곳의 교육기관을 다니며 특강과 교직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법교화 중심의 승가교육과 승가상 구현’이라는 승가교육개혁 기조를 현장에 전달 ·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지난 9년간 승가교육 개혁을 지속해왔다”면서 “지난 개혁들의 내용이 안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사업들은 이 같은 판단아래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승가교육 정책은 이제 내실 있는 정착으로 가야한다”며 “동국대 한문아카데미와 경주캠의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등 전국에 승가교육기관이 40~50곳이 된다.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원은 사찰승가대학원 학인 스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졸업성과물(논문 · 번역문 · 보고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수 연구물들은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은 지원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도 1억4000만원으로 2배 증액했고, 단체도 기존 19곳에서 24곳으로 늘린다. 이들 중 모범사례는 ‘법계 과정’ 연수교육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수 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현행 승납 30년 미만을 상향 조정하는 종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행혁신 ‘RESTART’

조계종 포교원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포교원이 2016년 기치로 건 ‘신행혁신’ 운동을 확대 전개한다. 신행정보센터 개설과 생활의례 보급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수행과 신행활동 지원, 미래세대 포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운영기조를 ‘신행혁신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발표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행혁신 운동의 대중화 작업과 미래세대 포교, 포교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적인 포교 활성화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홍 스님은 포교전법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행정보 제공, 생활의례 보급
〈불교성전〉 편찬 본격화 예정
직장불자회 등 네트워크 강화
모바일 등 뉴미디어 포교 개발
어청공동사무국 등 실무지원도

신행혁신 대중화 ‘원년’

조계종 포교원은 2016년 신행혁신에 대한 로드맵과 기본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포교원은 2017년과 2018년 신행혁신 운동안내서, 실천안내서, 신행일지 보급 등에 나섰다. 올해 신행정보센터를 개설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단 사찰에서 시행하는 신행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생애주기별 우리말 생활의례도 정립된다. 현재 포교원은 의례실무위를 두고 중앙종회 의례심사특위와 활동하고 있다. 태교, 백일, 영유아 관정의례, 성년의례, 화혼의례 등 다양한 생활의례가 법요집으로 편찬된다.

사업 설명에 나선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생활 속 수행을 위해 의례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종단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포교원이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 포교기반 강화

이와 함께 탈종교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노력도 이어진다. 포교원은 그동안 어린이청소년위원회, 동련, 파라미타,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등에서 청소년마음등불, 신행축제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위를 구성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학생 포교조직 준비위로 포교원은 대불련, 대불련동문회, 대학생전법단 등으로 준비위를 구성하고 2020년 대학생 포교를 전담하는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포교 콘텐츠 기반작업 본격화

지난해 종령 제정 등 기반작업을 다진 종단 최초 〈불교성전〉 편찬도 본격화된다. 불교성전은 일반 불자들이 수지독송할 수 있는 요전이다. 올해 2월 26일 불교성전편찬위 고불식을 시작으로 전문위원 위촉이 진행된다. 이어 교계 의견수렴 및 경전 인용 원칙 및 기준, 체제 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불교성전은 2020년 10월 경 편찬, 봉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청소년용, 점자 및 모바일 앱과 e북 형태로도 개발된다.

포교전법의 기반이 될 불교성전과 함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도 이뤄진다. 올해는 10월 경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교지도가 완성된다.

포교 신도 네트워크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불자회를 시작으로 기존 포교사단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토론회가 이어지며 단복개선을 비롯한 포교사 제도개선 등이 이어진다. 또 어린이청소년단체 실무인력 지원을 위해 공동사무국이 운영되는 등 각 포교단체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도교무금 제도 개선 등 당면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대중이 함께 힘을 모아 전법 포교 활성화에 역주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정숙 여사 ‘화엄세상’ 발원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최초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에 참석, 불교계와 함께 화엄세상을 발원했다. 김정숙 여사는 1월 18일 서울 조계사서 봉행된 신년하례법회서 “역사의 고비마다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기억한다. 서로를 부처로 모시는 세상, 모두가 저마다의 모양과 빛깔대로 만드는 화엄세상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법진 스님, 징역형에도 직책 유지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이사회, 법진 스님 임기 유지 결정
이사 14명 중 11명 찬성
2020년 8월까지 임기 수행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사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학원 이사회는 1월 24일 서울 안국동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비공개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대법원이 지난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로, 이사장 거취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선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사장 법진 스님의 거취문제는 공식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서는 법진 스님이 과거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표 수리에 대해 단 3명의 이사만이 찬성했으며, 11명의 이사들은 이사장직 유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진 스님은 4년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8월 말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 이사회가 열린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선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여러 이사들과 사전에 이사장 거취문제를 놓고 대화했다. 겉으로는 사퇴에 동의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투표를 하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학원 이사회 결과에 대해 법진 스님의 퇴진을 요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이사회의 권력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재차 확인하게 됐다.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융복합 · 재정 확충… 예비후보들 공통 화두

동국대 총장 예비후보 10명 정견 들어보니
1월 22일 총추위 3차 회의서 소견 발표 진행
고양BMC 부총장 신설 · 로터스관 건립 공약 多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19대 총장 후보로 나선 10명의 예비 후보의 공통된 화두는 '융복합 · 재정확충' 이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월 2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 대상자 10명에 대한 정견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후보들의 정견 발표는 모두 PPT로 진행됐다. 발표 시간은 1인당 20분, 질의응답 15분이 주어졌다. 발표 순서는 앞선 총추위 회의에서 추첨으로 조의연-유국현-박명호-이은기(서강대)-송일호-이상일-고유환-허남결-윤성이-김상겸 교수 순으로 정해졌다.

10명의 후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학교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담았다. 그 중에는 공통 분모도 상당히 존재했다. 건학 이념 구현이라는 공통적인 가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후보들은 융복합 · 재정확충을 주요한 키워드로 내놨다.

4차산업 파고 넘을 화두 '융복합'

4차 산업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이 제시한 것이 '융복합' 이었다. 특히 불교와 제반 학문들과의 접목을 이루려는 시도가 많았다.

'PROMISE 2019~2022' 를 비전으로 내세운 조의연 교수는 교육 · 연구 시너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 설립을 제시했다. 조의연 교수는 "동국융합원을 통해 대학원 협동과정, 학부 융복합 전공 운영, 국책 R&D 사업 수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현 교수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도전적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교육기획단' 을 신설해 융합교육과 창의적 실용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명호 교수는 융합 · 공유 전공제 확대를 비롯해 학제간 통합연구 강화 · 전공 개폐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이하 BMC)를 중심으로 생명존중의 BT(Bio Technology) 특성화를 통해 불교정신 구현에 노력하겠다"며 융합연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은기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장묘사업 등을 통한 종-학 연계 사업을 제안했다.

국내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송일호 교수는 "미래융합교육단과대학(가칭) 신설 등을 통해 동국브랜드 교육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추위가 개최한 회의서 후보자가 정견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이상일 교수는 불교 선학을 비롯한 심리학 · 상담학 · 교육학 · 정신의학 등을 연계한 '명상융합대학원' 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양학부 복수전공 프로그램인 '융합 · 창의 리버럴아츠 전공학부' · 대외적 위상을 고려한 '미래융합대학' 재설계 등도 제시했다.

고유환 교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위주의 대학 구조를 창의 ·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빠른 속도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복수 · 융합 · 협동전공 확대 및 활성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학 이념인 '지혜, 열림, 자비, 비움, 정진' 의 가치를 학교 경영 접목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허남결 교수는 동국대를 '글로벌 최고의 융 · 복합 인재 플랫폼' 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허남결 교수는 "융복합 창의교육센터 설립하고 AI, IoT, 빅데이터 처리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며 "불교 · 인문학 · 바이오 공학 등을 융복합화한 인공지능협업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 을 제시한 윤성이 교수는 건학이념 역량 강화 부문 중 세부 공약으로 불교 학술과 산업 간의 교각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교산업진흥원' 운영을 약속했다. 그는 "불교산업진흥원은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재학생의 현장 실습 또는 취업 기획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겸 교수는 "동국대 건학이념을 통해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포용과 융합을 넘어 학문 간의 유기적 결합과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겠다"면서 "분과 학문 중심의 파편화된 교육에서 탈피해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양각색 재정확충 방안

또한 모든 후보들 공히 자신만의 재정확충 방안을 내놨다.

부채를 줄이거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놓은 후보들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기업 등을 통한 고액 기부 유치들을 공언했다. 재임 중 재원 조성 규모도 2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다양했다. 그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다.

고양 BMC 활용과 충무로관 리모델링, 로터스관 건립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언한 주요 공약들이었다. 고양 BMC의 경우 부총장직 신설을 통한 분권적 운영을 제언한 공약들이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는 약 6시간 30분의 릴레이 발표 끝에 마무리됐으며, 전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한편, 동국대 총추위는 1월 28일 오후 2시 본관 3층 중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1월 30일에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3~5명 선출한다.

〈총추위 회의 관련 기사 차주 상보〉

봉은사 1월 29일 故백남준 조형물 제막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불자였던 故백남준 선생의 타계 13주기 추모재가 1월 29일 12시 30분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다.

추모재는 봉은사 법왕루에서 전통천도재 형식으로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故백남준 선생 유가족 및 백스튜디오 대표 도로시남, 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재에 앞서 특히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문화공연으로 알렉산더 세이킨의 아코디언 공연과 봉은 국악합주단 공연도 이어졌다. 이날 추모재 백미는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조형물 제막으로 데드마스크(사후 고인 얼굴을 청동으로 본떠 만든 상)를 기본으로 야외 석조형물로 제작됐다.

한편, 봉은사는 독실한 불자인 백남준 선생과 그의 어머니가 신행활동을 이어온 사찰로 백남준 선생 입적 후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에 추모재를 열고 있다. 노덕현 기자


故백남준 데드마스크 조형물.

대불청, 회원 세분화 사업 나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는 1월 20일 제29 · 30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해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대불청은 김영상 수석부회장, 이윤정 · 차지원 · 김영은 · 서재원 부회장, 한정인 사무총장을 대의원 총회를 거쳐 30대 임원진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대불청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연령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청년층을 아우르는 미래그룹, 고연령층을 포괄하는 리더그룹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재길 회장은 "만 18세 이상부터 참가가 가능해 연령제한이 없어 모든 연령대가 혼재돼 있었다"며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있다보니 세대 간 격차가 내부적으로 존재했다. 2030세대가 주축이 된 미래그룹과 4050세대가 주축이 된 중견그룹, 60대 이상으로 구성된 리더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 2의 김용균' 막기 위해 힘 보탤 것"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49재를 앞둔 가운데, 조계종 스님들이 고인의 빈소를 방문, 문제 해결까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은 1월 2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서 故김용균 노동자를 조문하고, 유족들과 만나 "제 2의 용균이가 나오지 않도록 종단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 및 故김용균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한 데 따라, 김 씨의 시신은 22일 충남 태안서 서울로 안치됐다. 조계종은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故김용균 분향소서 목요일마다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27일 광화문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49재를 지냈다. 김지원 기자

설명절, 사찰은 자비로 가득찬다

소외계층 합동차례, 생필품 전달 등 이어져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사찰이 지역민을 위한 자비나눔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2월 5일 2층 큰 법당에서 설 합동차례를 개최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다. 국제선센터는 합동차례 후 설맞이 쌀나눔을 진행해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설을 앞두고 받은 10kg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합동차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사찰이 접수받은 자비의 쌀 나눔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도 교도소 재소자들의 합동차례를 1월 30일 개최한다.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산작법 보존회의 시연과 함께 재소자 합동차례와 대중공양 등이 이뤄진다.

서울 조계사도 1월 29일 설을 맞아 관음재일 떡국 나눔을 진행했다. 관음재일 기도와 함께 회향 대중이 지역 독거어르신들에게 떡국 떡이 나누는 행사였다.

조계사는 창신동 쪽방촌 150가구, 종로구 고시원 등 350여 곳, 다문화가정 100가구, 독거어르신 300가구 등 총 900가구에 1.5kg 쌀 개별포장으로 총 80kg을 전달한다.

경산 선본사는 1월 18일 설을 맞아 쌀 40kg 20포를 경산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안산 보문선원도 1월 23일 지역 저소득가정에 떡국떡 300kg 등 생필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행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이 사찰에서 즐기는 놀이 마당도 펼쳐진다. 합천 해인사는 설 명절에 스님과 함께 해인사를 방문한 대중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2월 2~3일 '승가대학 스님과 함께 하는 설맞이 윷놀이 대회' 로 미리 사전접수 받은 불자들이 스님들과 한 팀을 이뤄 대형 윷을 날리는 대회다.

노덕현 기자

오직! 소리비교 조건만으로 초청후!

본사의 견본 염불시설로 내 염불이 편안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바꾸어지는 가장 확실한 체험후 견본 그대로 시설하는 길만이 사찰에 난무하는 불량 시설들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사가 개발한 염불전문시스템이 시중에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앰프 1, 스피커 2, LG데크 / USB, 무선마이크 헤드셋 2, 핀무선마이크 2 합계 4개
유선마이크 법문용 1 · 염불용 1 스탠드 포함 합계 2개 완벽시설비까지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특징: 고장난 적 없고 앰프다루기 1초

방생용 앰프 및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달라지는 소리도 구경

▣ 소리 비교 조건으로 초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박 청 락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동국대 19대 총장 예비후보에게 듣다

동국대 총장 선거 예비 후보 10명이 1월 18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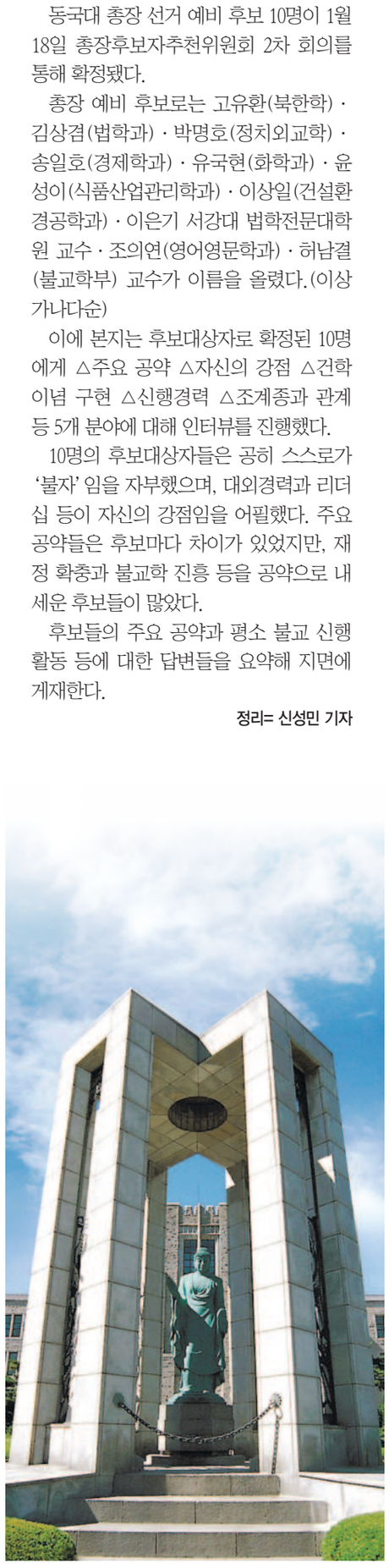
총장 예비 후보로는 고유환(북한학) · 김상겸(법학과) · 박명호(정치외교학) · 송일호(경제학과) · 유국현(화학과) ·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상일(건설환경공학과) ·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의연(영어영문학과) · 허남결(불교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상 가나다순)

이에 본지는 후보대상자로 확정된 10명에게 △주요 공약 △자신의 강점 △건학이념 구현 △신행경력 △조계종과 관계 등 5개 분야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10명의 후보대상자들은 공히 스스로가 '불자' 임을 자부했으며, 대외경력과 리더십 등이 자신의 강점임을 어필했다. 주요 공약들은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재정 확충과 불교학 진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많았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평소 불교 신행활동 등에 대한 답변들을 요약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신성민 기자





고 유 환 교수
(북한학)



김 상 겸 교수
(법학과)



박 명 호 교수
(정치외교학)



송 일 호 교수
(경제학과)



유 국 현 교수
(화학과)

"불교 융합 연구·인성교육 지원" 한목소리

학교 발전 위한 주요 공약은

고유환 교수는 분권형 책임경영을 비롯해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특성화 △로터스관 랜드마크화 등을 꼽았다. 특히 고유환 교수는 "로터스관에 불교박물관 · 세계불교선원 · 국제회의장 · 예식장 · 기타 복지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며 "세계불교선원에는 만불봉안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는 △인재불사 △재정확충 △복지확대 등 세 방면에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김상겸 교수는 "동국대 건학이념을 통한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면서 "대학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과 기부금 다양화, 기업과의 협력 관계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명호 교수는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 수요자와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대학 혁신' 과 '자율과 책임의 대학 혁신' 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박명호 교수는 " '설득과 동참의 리더십, 공공성의 리더십' 으로 동국대의 10년 이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첫 4년을 이끌 것"이라며 " '동국가족의 교무 참여와 평가의 제도화, 교협의 적절한 역할 부여를 통한 공공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일호 교수는 "화쟁사상의 실천으로 존중과 신뢰의 동국문화를 정립할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세계 수준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과 연구 모델을 개발하고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유국현 교수는 "미래 수요를 교육에 반영" 할 것을 주요공약으로 밝혔다. 특히 연구 지원 시스템을 '선-투자, 후-성과' 체계로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교 행정 체계에 자율과 분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성이 교수는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 이라는 비전 아래 △건학이념 △지속경영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등 4개 분야 역량 강화 2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역량 결집과 조직 혁신을 통한 종립대학의 존재 가치 향상 · 대학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윤성이 교수는 "세계대학 평가 100위 이내 10개 학과 보유 대학 및 국내 10위권 대학 위상을 비롯해 1000억 원대 연구비 조성 · 50%대 등록금 의존율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교수는 △학교 공동체성 회복 △전통 자산 혁신적 확산 △안정된 재정확충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상일 교수는 "학생회-교수협-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회복하고 보직자 인사 추천제 · 학장 임명 거부권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기 교수는 △이공대 · 연극영화학부 집중 육성 △야간 로스쿨 설립 △명상 일상화 통한 인재 양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공대를 집중 · 육성해 국가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동문 스타들을 활용한 영화 제작과 그 수익을 학교로 환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의연 교수는 "공감, 공유, 공영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내 · 외부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겠다"며 'PROMISE 2019~2022' 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교육 · 연구 시너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 설립과 지역사회 · 구성원과의 연합을 위해 고양바이오메디컬캠퍼스에 부총장 · 행정처장 직제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전략적 자원관리 ·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해 재임 동안 2200억 원의 재원 조성을 공언했다.

허남결 교수는 'One Team 동국' 을 목표로 내걸고 학교 건학 이념인 '지혜, 열림, 자비, 비움, 정진' 의 가치를 학교 경영에 접목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남결 교수는 "건학 이념에 바탕한 5대 가치 경영을 통해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순서 가나다 순〉

총장 후보로서 강점은

허남결 교수는 비판과 행정을 오갔던 경험을 스스로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교수회장으로서 학교 정책을 비판했던 경험과 비서실장으로서 행정을 수행했던 경험을 균형 있게 살린다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입장을 넘나든 개인적 경험은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의연 교수는 자신의 강점을 '포용과 통합능력' 으로 자평했다. 이를 통해 조의연 교수는 '대화합의 리더십' 과 '시너자이저(synergizer)형 총장 리더십' 을 펼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가 공감 · 공유 · 공영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성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교수는 교외인사로서 객관적으로 동국대를 분석했던 것이 강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갈등을 내부 인사들이 대응하는 방식과는 달리 접근해 원만히 봉합할 수 있다"면서 "공법실무가로서 축적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과 협력해 학교 발전을 이룰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교수는 다년간의 대학행정 경험과 학내 구성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의 대학 생활을 지탱해준 원만한 품성과 민주적인 소통 능력, 그리고 다년간의 대학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학생-교직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국내외 대학 및 기업과의 폭넓은 인적 네크워크를 바탕으로 학교의 위상과 품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성이 교수는 배려 · 존중 · 화합 · 소통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영' 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교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흑자 경영으로 전환이 아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며 "조직의 성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 중심의 경영' 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국현 교수는 '연구 분야 실적 및 우수교원 초빙 노하우' 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교내 행정 보직과 과학기술부 사업에서 900억 원대 사업단 단장을 역임한 경험도 자신의 차별화된 강점임을 강조했다.

송일호 교수는 "자신이 경제 · 경영모델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 학계 · 교계 · 정치권에 폭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했으며, 대학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을 지녔다"며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신심이 높은 불자"라고 강조했다.

박명호 교수는 자신의 강점으로 '리더십' 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설득과 동참, 신뢰, 공공성 △자율과 책임 △장기 비전 등의 리더십을 가졌음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구성원과의 공유와 공감이 가능한 신뢰가 전제돼야 공동체의 통합이 가능하다"며 "동국대 공동체의 위기 극복은 이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교수는 다양한 대외활동과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김상겸 교수는 현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종교법령개정특위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참여하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대외 · 사회활동으로 폭 넓은 경험과 기획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다"고 자신했다.

고유환 교수는 국내 유수의 북한 전문가로서 쌓은 대내외활동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사회와 종단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대학과 종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서 가나다 역순〉

창립 30주년 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5월17일 / 6월14일 / 7월19일
8월19일 / 9월18일 / 10월11일
대부분 이상욱 법사의 실크로드 명강의로 진행됩니다

한국인을 위한
2019 달라이라마 법문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11월 4일-6일(3일간)
주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A팀(11/1출발) - 달라이라마 **법문만** 8일
B팀(11/2출발) - 법문+**델리관광** 8일
C팀(11/1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D팀(11/1출발) - **인도 성지**순례 15일
E팀(11/2출발) - **부탄** 순례 11일
*자세한 일정은 문의주시기바랍니다.

티베트, 수미산 에베레스트 18일
2019년 6월 7일 출발 ~ 6월 24일
8월 20일 출발 ~ 9월 06일
티베트, 수미산 17일
7월 5일 출발 ~ 7월 22일
7월 26일 출발 ~ 8월 11일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마음여행사' 또는 '실크로드여행사' 검색 홈페이지 maumtour.com



윤 성 이 교수
(식품산업관리학과)



이 상 일 교수
(건설환경공학과)



이 은 기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조 의 연 교수
(영어영문학과)



허 남 결 교수
(불교학부)

〈이상 가나다순〉

불교·대내외 경력·리더십 등 강점 '자신'

건학이념 구현 위한 계획은

고유환 교수는 불교 연계 교과목 신설이 가능한 인문사회계열 학과 선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교와 연계한 교과신설 지원을 검토하고 참선·명상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불교진흥원과 함께 불교교리 대중화와 포교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교수는 불교친화적 교육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상심리과정 등을 개발해 불교친화적 프로그램과 불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게 김상겸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전공별 불교융합적 교과목 개발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박명호 교수는 불교대학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이할 인간성 상실과 정체성 위기에 불교는 정신적 대안이다. 불교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 교육을 실천할 '동국 DNA 인재'는 인간성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바이오메디캠퍼스를 중심으로 생명존중의 BT(Bio Technology) 특성화를 통해 불교정신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송일호 교수**는 불교 한류문화원 설립 등 불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을 개발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일호 교수는 "대학생 포교 및 불교성전편찬사업을 지원하는 등 불교대중화를 위한 동국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불교계를 위한 동국 지식의 재생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현 교수는 '불교적 인재' 양성에 방점을 뒀다. 그는 △재학 중 템플스테이 체험 △봉사학점 확대 △불교학술원 확대개편(연구교수 증원, 해외 분원 설치 등) △불교문화 콘텐츠 연구 강화 △불교대학 독립 건물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성이 교수는 불교학 연구 세계화를 위한 지원·불교적 인재 양성 교육 등을 약속했다. 특히 불교학술원의 영문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A&HCI 등재 추진을 비롯해 △불교 명상 결합 융합학문 개발 △불교 교양교육 질적 제고 통한 화쟁형 인재 교육 △불교산업진흥원 구성 통한 불교 산학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상일 교수는 명상을 중심으로 한 융합연구·교육기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명상융합대학원·글로벌명상센터 설립과 불교박물관 신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신이 졸업한 스탠포드대학을 비롯한 세계명문대학과의 명상 관련 학술교류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은기 교수는 '명상수련 컨트롤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명상 수행을 일상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세계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해 불교국제학술대회 활성·정례화를 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조의연 교수는 "불교 교리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불교정신의 시대적 구현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학술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계 대표 연구기관으로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불교학술원을 뇌공학, 인공지능 등 관련 학자들과 불교학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실질적인 연구와 실험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허남결 교수는 불교계 기관들과 연계해 불교의 저변을 넓힐 것을 강조했다. 허남결 교수는 "불교계 언론과 공동으로 불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불교실천네트워크를 확장해 불교의 저변을 넓히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불교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장기기증·헌혈·환경생태운동·성소수자권익보호·다문화이주민지원·불교생명윤리실천 등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서 가나다 순〉

불교와의 인연 및 신행활동

허남결 교수는 어릴 적부터 고향인 경주 인근의 기림사, 골굴사, 석굴암, 오어사, 불국사 등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법명은 '월인'이다. 그는 불교생명윤리 정립에 앞장 선 불자 윤리학자로 불교계에 높은 명망과 인지도를 가졌다. 허남결 교수는 "지금 전국 각지 사찰에 적을 두고 연등과 조상 영가등을 달고 있으며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에게 '벽봉'이라는 법명을 받은 **조의연 교수**는 현재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소림사를 재적사찰로 두고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사업을 이끌었으며, 도반인 김애주 교수 등과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마음챙김 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조의연 교수는 "〈석문의범〉의 '문차종성 이고득락(聞此鍾聲 離苦得樂)'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교수들은 아침 종소리의 역할을 해야 하고, 학생들이 이를 듣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교수는 서경보 스님에게 '성현'이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결혼 후에는 서울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녀들 역시 서울대 법대, 사회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했다.

이상일 교수는 경기 의왕시 용화사를 재적사찰로 두고 있으며, '자운'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공학도이지만 불교와의 접점 모색은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2014년부터 생태환경연구소장으로서 불교생태학이 전통사찰환경의 유지·개선 및 도심 포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현재에도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윤성이 교수**는 지리산 칠불사와 고성 무위사가 재적사찰이며, 법명은 '도인'이다. 2009년 6월부터 2년간 동국대학 불자교수회 총무 소임을 담당하면서 불자 교수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정각원과 함께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한국사찰림연구소장 소임을 보면서 사찰림이 가지는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녹원 스님에게 '보행'이라는 법명을 받은 **유국현 교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총무부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꾸준한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일호 교수는 모친과 함께 어린 시절 수국사를 다니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법명은 '진공'이다. 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교수불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을 수상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에 대학생 포교 및 불교성전편찬사업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옥천암을 재적 사찰로 두고 있는 **박명호 교수**는 '법우'라는 법명을 받았다. 평소 부처님의 '중도'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도의 실천을 위해 '팔정도'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면서 "연구실에서 본관을 오갈 때 정각원 계단을 오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밝혔다.

본인의 법명을 '현응'으로 소개한 **김상겸 교수**는 어릴 적부터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 벽안 스님에게 수계 받은 불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동국대 재직 중에도 녹원 스님, 법타 스님, 자광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았다"면서 "정각원, 서울 구룡사, 칠보사(석주 스님 주석) 등을 재적사찰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원 스님에게 '혜성'이라는 법명을 수계 받은 **고유환 교수**는 모친의 영향으로 불교를 접했고, 동국대 입학 이래 재가불자로서 수행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견성(見性)·불기자심(不欺自心)·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는 경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순서 가나다 역순〉

동국대와 조계종의 관계 발전

고유환 교수는 조계종의 대북교류활동에 대해 꾸준히 지원했음을 강조하며 "불교·사회·대학을 연계한 종합적 동국발전의 비전을 수립하고 종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불교 교세 확장과 학교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는 "20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불교신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불교융합적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단과 학교 양자 간 보다 적극적인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는 조계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의 역할은 "인재불사를 통한 불교중흥"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혜·자비·정진'의 교훈을 실천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동국대는 종단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국대와 조계종의 역할 분담과 협력은 불교중흥에 함께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일호 교수는 '불교발전을 위한 종립대학의 역할 재정립'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종단 포교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유국현 교수는 종단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종단은 수행과 포교, 학교는 연구와 교육의 분야에서 상생과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포럼'을 구성해 종단과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이 교수는 '대학과 종단 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상시적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은 새로운 포교 방식에 대한 과학·학문적 지원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종단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교수는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명상융합대학원 설립, 불교박물관 신축, 북한불교유적발굴단 구성은 불교에 기반한 시대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는 비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학과 종단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은기 교수 역시 종단과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동국대와 조계종단이 상호 협력해, 불교 중흥과 동국대 발전이라는 상생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의연 교수는 "종단과 학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동국대는 미래 및 현재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에 불교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남결 교수도 종단과 상생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는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종단은 포교불사에 집중한다면 종단과 학교가 동시에 발전하는 방향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서 가나다 순〉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32-3722, 031)533-3722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선운사, 지장전 낙성·지장보살 이운

"지장성지로 거듭나길"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23일 경내에서 지장전 낙성 및 금동지장보살좌상 이운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보살상은 1936년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 팔려갔다가 1938년 선운사로 환수됐다. 이후 관음전, 성보박물관에 봉안돼 있다가 이번 지장전 낙성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

이운법회에는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법현 스님, 선운사승가대학 강주 재연 스님, 학장 환성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신유섭 신도회장, 조옥숙 관음회장, 오성민 대원지장회장 등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살상이 이운된 지장전은 맞배지붕 형식의 정면 3칸, 측면 3칸, 넓이 69.34㎡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운사 지장보살님은 도난돼 일본까지 건너갔다 돌아오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간 여러 전각에 모셔져 있었지만 이제야 제 자리를 찾게 됐다"며 "지장전 건립을 계기로 선운사가 지장신앙 성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81년 만에 지장보살을 모실 전각을 마련해 기쁘다. 전국 불자들이 지장전에 참배하고 기도원력을 통해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24일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18대 교구본사 주지선거를 위한 산중총회를 2월 23일 열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자 쾌유 기원한 천진불 합창

부산 안국선원교육관 어린이합창단 신년음악회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어린이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한 병원에 울려 퍼졌다.

안국선원교육관(관장 석산) 어린이합창단은 1월 1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안국선원교육관 어린이합창단 신년음악회는 창단 1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공연에 이안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했다.

박수영 지도교사는 "2018년 정식 창단 후 첫 무대를 봉사로 시작해 뜻깊다"며 "올해는 창단 음악회를 정식으로 열고 좋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국선원교육관 어린이합창단에는 20여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기도전포상제를 포함한 체험활동을 함께 운영하고 어린이불자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선가귀감〉 연수교육

3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조계종 스님들의 교육을 위해 〈선가귀감〉 강의가 열린다. 조계종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연수교육 점수도 받을 수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3월 12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선가귀감〉 강의를 시작한다. 강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며,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하루 3시간 5회에 걸쳐 15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번 강의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스님은 연수교육 점수(30점)를 받을 수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부산 및 인근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힘쓰는 스님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설 명절 이웃 행복 기원한 불교계

부산 · 경남, 자비나눔 행사로 훈풍 불어넣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 및 경남 불교계는 나눔으로 행복한 새해를 기원했다. 사진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사상구청을 방문해 백미를 전달한 모습.

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설날을 맞아 부산 및 경남 불교계에서는 따뜻한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새해맞이'를 기원해 훈훈함을 전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청과 진구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나눔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각 구청에 백미 700포대(각 10kg)씩 총 1400포대(4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또한 박수관 회장은 1월 25일 금정구청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박수관 신도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은 "명절이면 더욱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가족들과 함께 더욱 따뜻한 한 해를 보내고 풍요롭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자비의 쌀은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해 더욱 의미가 깊다.

각 지역을 대표해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서은숙 진구청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지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부산 재가불교계를 대표하며 지난해 7월에 출범했다. 이후 연탄 나눔, 백미전달, 김장나눔 등 이웃을 위한 나눔 행보를 적극 펼치고 있으며, 이웃 종교간 화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평소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을 전달하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1월 21일 사하사암무료급식소에서 '자비의 떡국 떡 전달식'을 개최했다.

떡국 떡은 1kg 200개로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모두 전달했으며 전달식에는 회장 법인 스님, 총무 송우 스님 및 회원 스님들과 박창식 사하경찰서장, 이

4200만원 상당 백미 나눔
무료급식소 떡국 떡 전달
설맞이 음식 및 성금 후원
"풍요로운 명절 기원하며"

경애 사하불교연합회 복지회 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법인 스님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가 고생 많으셨다"고 회원과 어르신을 격려한 뒤 "사하불교연합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밥을 지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며 급식소 운영하겠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속 찾아 달라"고 인사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지역 내 불교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경로잔치, 자살방지 및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사하구 불자의 밤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 불교계 스님과 불자들은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하며 새해를 맞이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는 1월 30일 창원시청 시민홀 대강당에서 '제29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공연과 기원문 낭송 및 봉행사로 시작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식을 진행하고, 이어 한부모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협회에 성금 5000만원과 설맞이 용품을 선물로 전달한다.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은 29년 전 마창불교연합회(마산 · 창원불교연합회)가 창립된 직후 초대 회장 지안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해 사단법인 금강자비회의 후원으로 지속됐다. 현재 나눔 성금은 총 9억 원이 넘는다.

불교계 종합복지관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400세대에 떡국 거리 및 생필품 전달하고 따뜻한 설날을 기원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월 31일 복지관 내 강당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에서 복지관은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대에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더불어 흥겨운 축하공연을 마련한다. 행사 후에는 떡국 공양도 진행해 따뜻함을 더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박재범 남구청장, 박재호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다. 전달식에 이어 2월 1일에는 용호어린이집 아동과 지역주민이 함께 팀을 이루어 '신나는 윷놀이 한판' 행사도 이어진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떡국 떡과 유과를 판매하고 있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요망지게 잘헌상 받았어요!"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1기 졸업생 151명 배출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이 1월 19일 보리왓 법당에서 불교대학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질 잘헌상(학업 최우수상)" "제라지게 잘헌상(학업 우수상)" "요망지게 잘헌상(모범상)"…. 제주방언으로 만들어진 상장명과 함께 불교대학 학업우수자들의 이름이 불리자 큰 박수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의 졸업생이 처음으로 탄생한 현장이다.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원장 성원)은 1월 19일 보리왓 법당에서 불교대학 1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원장 성원 스님과 제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팔공산 은해사 교육국장 용주 스님, 관음사 사회국장 법성 스님을 비롯해 김태식 제주도의회 의장, 조상범 제주 문화스포츠대외협력국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졸업식은 학사보고로 시작해 졸업장 증정 및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축가로 축하했다. 이어 인사말과 송별사, 격려사 및 축사 등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불교대학은 졸업식에서 수여할 상 명칭을 제주방언으로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불교대학은 앞으로도 제주방언으로 상장명을 만들어 지역 특징을 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은 2017년 11월 25일 문을 열어 2018년 3월 신입생 172명을 모집,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1년 동안 수학 과정을 마치고 15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은 제주에서 보기 힘든 강사진을 구성해 수준 높은 강의를 이끌었으며,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인 것을 인기 비결로 꼽았다.

원장 성원 스님은 "졸업생들이 각자의 가정과 사찰로 돌아가 사회와 불교를 위해 더 헌신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불교대학의 존재 이유"며 "앞으로 새롭게 입학할 인연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은 신입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7일이며 1년 과정이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진행된다. (064)746-0108

제주=하성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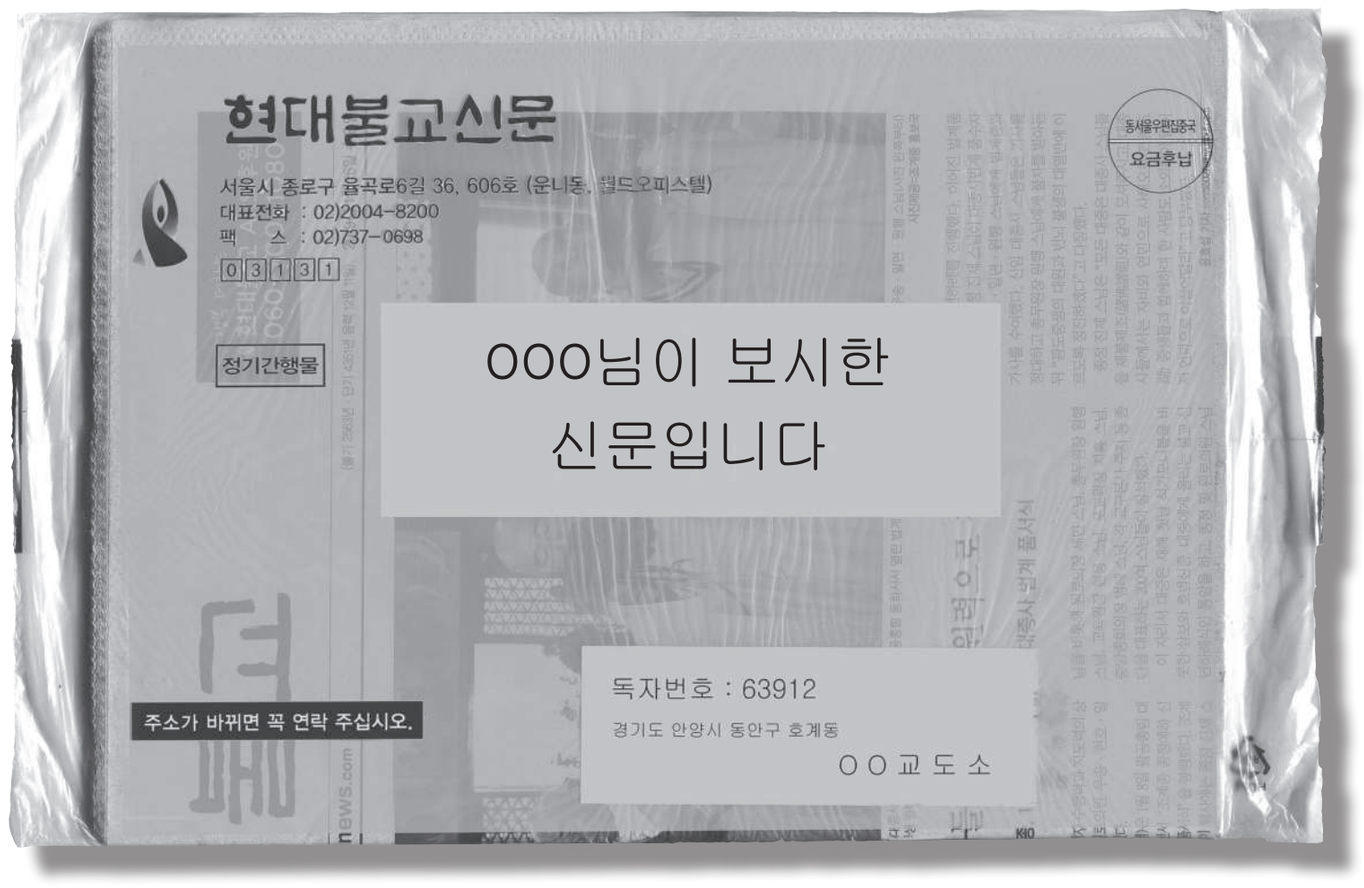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 ▶총장실 : (02)511- 1080
- ▶http://www.njutcm.co.kr

"불교에 귀의한 이후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대불교신문을 보는 것입니다. 출소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불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 씨 (안양교도소)**

"군법당에 가면 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보며 불교계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군대 내에서 듣기 힘든 큰 스님들의 법문을 접하고 신심이 더욱 나는 것 같습니다." **김혁민 씨 (5사단 장병)**



봉투에 담긴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법보시 후원 해주신 분들

이정자붕스님 무원스님 상현스님 선덕스님
진일스님 청무스님 혜관스님 혜용스님
강갑순님 강도분님 강명옥님 강민경님
강수옥님 강순희님 강영내님 강정숙님
강정훈님 강혜숙님 고재숙님 고한순님
고화경님 공평근님 곽순정님 곽춘자님
구자삼님 국창래님 권갑남님 권귀분님
권규열님 권나래님 권미경님 권순령님
권영일님 권영주님 권익중님 권정화님
권태리님 권효심님 김경훈님 김금민님
김기석님 김기홍님 김길봉님 김나은님
김담서님 김담현님 김대근님 김덕임님
김동훈님 김명란님 김명옥님 김무재님
김문윤님 김미래님 김미숙님 김미원님
김민정님 김병호님 김상덕님 김선엽님
김선옥님 김성규님 김소령님 김수안님
김수옥님 김숙희님 김순복님 김순희님
김승재님 김신득님 김신숙님 김연수님
김연옥님 김영규님 김영식님 김영애님
김영예님 김영옥님 김영용님 김영자님
김영팔님 김영해님 김옥선님 김옥수님
김용만님 김용순님 김용호님 김원녀님
김원순님 김원열님 김원영님 김윤관님
김윤순님 김윤자님 김은하님 김의식님
김인태님 김장원님 김재방님 김재희님
김정단님 김정덕님 김정렬님 김정미님
김정숙님 김정아님 김정애님 김정옥님
김정자님 김제성님 김종숙님 김종영님
김종학님 김 준님 김준부님 김준우님
김지숙님 김진금님 김진영님 김차연님
김찬수님 김철수님 김철종님 김태균님
김태수님 김태오님 김태윤님 김태주님
김학수님 김향숙님 김현국님 김현규님
김현신님 김현주님 김현화님 김형조님
김형철님 김화일님 김효상님 김희자님
김희진님 나귀례님 나홍열님 남선자님
남정현님 노미자님 노성희님 노순남님
노실호님 노영애님 도경민님 도예린님
도이환님 라귀례님 류매리님 류지혜님
류춘자님 문경숙님 문선희님 문수홍님
문임숙님 문점숙님 문정희님 박강숙님
박건웅님 박경수님 박경숙님 박경순님
박경환님 박경희님 박공임님 박광순님
박기범님 박나리님 박남순님 박명희님
박미선님 박미자님 박봉영님 박상섭님
박성수님 박성혁님 박세아님 박숙자님
박숙희님 박순영님 박신영님 박연신님
박영숙님 박옥경님 박옥남님 박옥순님
박은주님 박장미님 박재석님 박정노님
박정부님 박정숙님 박정자님 박정희님
박종림님 박종수님 박종임님 박주호님
박준영님 박지연님 박지현님 박진우님
박차선님 박철홍님 박춘봉님 박태수님
박해일님 박현동님 박현숙님 박현주님
박형채님 박혜경님 박혜선님 박흥국님
방명극님 방명호님 방순자님 방장수님
배삼순님 배수진님 배숙자님 배영숙님
배우한님 배은주님 배호성님 백영안님
변영희님 변융태님 서미옥님 서민자님
서송자님 서영호님 서정우님 설정수님
성민자님 소충호님 송동호님 송상용님
송용관님 송은경님 신길주님 신덕근님
신선희님 신성완님 신수영님 신순애님
신영찬님 신재근님 신조현님 신주호님
신진희님 심경우님 심영애님 심영자님
심원식님 심춘자님 심현보님 안계수님
안승원님 안정아님 안정은님 안중희님
안창순님 양세욱님 양연희님 양영모님
양영순님 양재윤님 양재인님 양현임님
양현주님 양희성님 엄상호님 엄순필님
엄태영님 염종희님 오경수님 오경숙님
오경환님 오신재님 오영희님 오용근님
오인숙님 오재영님 오정애님 옥영식님
우지예님 유경자님 유재기님 육성희님
윤기홍님 윤병덕님 윤상기님 윤수영님
윤애순님 윤영옥님 윤용국님 윤정숙님
윤정일님 윤향숙님 윤현숙님 윤희원님
이강만님 이경애님 이광수님 이광훈님
이군자님 이근기님 이금옥님 이기탁님
이기현님 이나금님 이나은님 이낙영님
이대섭님 이대희님 이동건님 이동숙님
이동진님 이명순님 이명희님 이미라님
이미숙님 이미애님 이미옥님 이미자님
이미화님 이민서님 이보편님 이복성님
이복희님 이상근님 이상숙님 이상태님
이성수님 이소영님 이수영님 이숙경님
이순임님 이순희님 이여주님 이연보님
이연애님 이영득님 이영숙님 이영순님
이영자님 이영진님 이영희님 이옥희님
이왕구님 이용법님 이우순님 이우윤님
이원상님 이원희님 이유순님 이윤재님
이윤호님 이은지님 이은희님 이익수님
이재숙님 이정남님 이정옥님 이정일님
이정자님 이정조님 이종섭님 이종옥님
이종의님 이종협님 이주원님 이중기님
이진선님 이진주님 이차경님 이춘근님
이한용님 이향경님 이향림님 이향순님
이형신님 이호진님 이화자님 이화행님
이훈노님 이희두님 이희숙님 이희정님
일 인님 임선희님 임옥빈님 임재환님
임종구님 임춘희님 임희석님 장미숙님
장미순님 장성윤님 장순함님 장양경님
장영길님 장준동님 장준영님 장준호님
장현만님 장현제님 장형하님 장혜선님
장희숙님 전명국님 전미자님 전병수님
전소윤님 전정숙님 정갑임님 정금란님
정길동님 정동하님 정숙점님 정순남님
정영신님 정옥주님 정옥화님 정은영님
정은주님 정의진님 정인순님 정인자님
정일극님 정일배님 정정애님 정종윤님
정창남님 정태순님 정하석님 정학진님
정해림님 정현정님 조동조님 조민규님
조성준님 조재규님 조정해님 조현정님
주미숙님 주정숙님 진동석님 진말련님
천병길님 천상봉님 천수만님 천영기님
최갑식님 최병락님 최복순님 최순이님
최아리님 최영숙님 최은희님 최재순님
최재원님 최재혁님 최정기님 최정미님
최정선님 최종열님 최주선님 최춘웅님
최현창님 최희숙님 최희승님 추수욱님
하재한님 한경호님 한광호님 한기준님
한동원님 한성욱님 한세진님 한영찬님
한예리님 한윤진님 한은섭님 한인식님
한정교님 한정석님 한정숙님 허경숙님
허복영님 허수자님 허애령님 허점둘님
허추자님 허태환님 홍민자님 홍 순님
홍순혁님 황경숙님 황규진님 황논철님
황수경님 황용숙님 황인욱님 황태숙님
황혜경님 김미지원장님 박말이야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각사 대광사 능가사 성불사 학림사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광명선원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한마음선원제주지원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마음선원청주지원 한마음선원강릉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문경지원 논술문화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평윤씨조상 청주한씨조상 윤숙희영가 윤재규영가 차길분영가 명의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보시로 교도소 및 구치소, 소년원 등 **교화기관 73** 곳, 군병원과 군법당 등 **군시설 193** 곳,
경찰서 125곳, **병원 2** 곳,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기관 127** 곳 등 총 **520**곳에 **1049**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 법보시 (02)2004-8212

분별 벗어난 소박한 '美' 보라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② 조주 선사와 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 고흐의 소박한 삶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고흐는 이 작품을 자신이 그린 최고의 작품이라 평했다.



단촐한 고흐와 테오의 묘지.

소박함 빛나는 '감자먹는 사람들'
화려함 보다 내면 아름다움 탐구
조주 선사의 분별여읨과 맞닿아



네덜란드 크뢸르 미술관의 고흐 작품.

여기 그림 한 점이 있다. 흐릿한 기름 램프 불빛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일가족.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 소리를 낼 듯 소박한 나무 식탁에서 농부의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는 늦은 저녁이다. 큰 접시에 놓여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감자,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들 식사의 전부이다. 할아버지는 차를 따르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멈, 이거 맛있네 그려" 이런 표정으로 잔을 들어 보이지만, 할머니는 "영감탱이, 늘 먹는 걸 가지고 무신" 이러는 듯 차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곁에 앉은 젊은 여인은 남자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말이 없다. 화면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 집의 어린 딸은 말없이 감자를 먹고 있다.

반 고흐는 20대 초반, 네덜란드 뉘넨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 오늘날 뉘넨은 '반 고흐 마을' 이라 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는 짧은 생애에 팔지 못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은 저녁 식사를 하는 가난한 농가의 소박한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이 그림 역시 고흐의 다른 많은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세상엔 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있으며, 세속의 눈으로 볼 때 값지고 귀한 것이 많다. 그러나 고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는 최고의 그림"이라고 썼다.

브뤼셀에서 미술학교 수업시기를 보낸 후, 그는 파리를 거쳐 아를로 옮겨가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남프랑스의 눈부신 햇빛 아래서 그는 밝고 화사한 색채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생 레미 정신병원 시절 이후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서 짧은 생을 거둔다. 반 고흐는 자신의 여러 작품 중, 유독 어둡고 칙칙한 색채와 투박한 필치의 이 그림에 왜 그토록 애정을 가졌을까?

조주 선사께서 남기신 글 한 편을 읽어본다.

그래도 향을 사르며 예배하는 사람 있네
다섯 할멈 가운데 세 명은 혹이 달리고
두 사람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
참깨와 차를 공양 올리다니 진귀한 일이네
금강역사여 팔뚝에 너무 힘을 주지 말게나
내년에 누에농사 보리농사 잘되면
나도 나한전에 공양 좀 올리려 하네.

哺時申 也有燒香禮拜人
五箇老婆三箇癭 一双面子黑皴皴
油麻茶 實是珍 金剛不用苦張筋
願我來年蠶麥熟 羅候羅兒與一文

– 조주 선사의 12시가 중 신시

조주 선사의 12시가는 닭이 우는 축시부터 한밤중의 자시까지 어느 가을날의 하루를 노래한 열두 편의 모음으로, 신시는 12시가 중 8번째에 해당하는 시이다. 해거름 불당을 찾아와 예불 드리는 이는 온통 주름투성이 얼굴에 혹이 달린 할머니들이다. 그들은 진귀한 유마차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있다. 금강역사는 5백 야차신(夜叉神)을 거느리고 천불(千佛)의 법을 수호하는 수문신장이다. 해질 무렵, 어둑해지는 일주문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을 법한 금강역사의 그 형세가, 고된 하루일과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늙고 주름진 얼굴의 노보살들의 소박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조주선사는 금강역사에게 '늦은 오후 보살님들이 불전에 진귀한 차를 올리고 예불 드리니 얼마나 갸륵한가. 역사께서도 힘을 좀 풀고 쉬시게나' 라고 말을 건넨다. 무릇 중생이 부처님 앞에서는 신분의 귀하고 천함이 없으며 부귀하고 가난함으로 구별되지 않기에 산문을 들어와 불공을 드리는 데는 왕후장상이 따로 없으며 세상의 신분이 미미한 사람 또한 따로 없다. 선사께서도 다만 그 모습에 일언일구를 더하기 보다는 누에치기와 보리농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육조 혜능 선사는 "만유제법(萬有諸法)은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이므로 분별심이 아닌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야 만유의 본체를 여실히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부처의 눈은 불전에 향을 올리고 엎드려 절하는 보기 흉한 혹 단 늙은이의 마음을 볼 뿐이다. 부처는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을 넘어, 일체의 분별을 여읜 진여를 바라보는 자다.

하루는 조주 선사께서 절간 마당을 쓸고 계셨다. 스님 한 분이 "대선지식께서 어찌 손수 마당을 쓸고 계시나이까?"하고 묻자 선사는 "티끌은 밖에서 들어오느니라"하고 대답하셨다. 뜻을 알 수 없는 선사의 대답에 그 스님은 재차 "마당은 깨끗한데 어찌 티끌이 있겠사옵니까?"하고 물었다. 조주 선사께서는 "여기 티끌이 또 하나 들어와 있구나"하고 대답하신 후, 묵묵한 비질을 계속하셨다. 마당을 쓰는 일에 선지식이 어디 있으며, 천한 머슴이 어디 있겠는가? 선사는 꾸짖거나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으나, 마당 쓰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 분별심이야말로 티끌이라 일러 주신다.

인상주의, 후기인상파로부터 시작되는 서양 미술사의 모더니즘은 이전 시대의 미술 사조와 달리, 빛이 사람의 눈에 닿아 일으키는 감각자극과 내면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전의 사조가 종교적, 정치적, 역사적 주제로 서사적 이야기를 담아왔다면, 고전 미술과 달리 모더니즘에 이르러서는 회화의 주제 선택이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이제 회화는 화사한 빛으로 충만한 색채와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차를 마실 때 왜 차를 마셔야 하는지, 어디서 왔기에 차를 마셔야 하는지, 이 찻잎의 종류는 무엇인지 굳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잔에 담긴 차의 향과 색 그리고 차를 내 온 이의 마음을 음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 종교, 정치 또는 사회의 온갖 지식 등을 통해, 이유나 논리를 찾아야만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빛과 어두움 그리고 그것이 전달하는 인상만을 통해 직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예술 감상 태도가 바로 인상주의의 끽다거(喫茶去)가 아닐까 여긴다.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에두아르 마네, 오귀스트 르느와르, 에드가 드가의 그림들은 한결같이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채와 필치를 보여주는 반면,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은 거칠고 투박한 붓질로 갈색과 회색, 검은 색조로 그려졌다. 이 그림은 당시 호평받던 조화로운 색조나 완벽한 구도, 이상적인 공간과 인체묘사를 중요시했던 고전주의 미술양식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주제적 측면에서도 고흐의 그림에서는 신화 속 아름다운 신도, 역사화의 용감한 영웅도 등장하지 않는다. 고흐는 그리 선호되지 않던 농민들의 초라한 일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기존 화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 절친했던 동료화가 라파르트는 이 그림이 인체의 비례가 맞지 않고 그림 전체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고흐는 그와 절교한다. 후대에는 고흐와 함께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며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폴 세잔마저 당시에는 바로 곁에서 고흐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미친 사람이 그렸거나, 나는 전혀 인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그림' 이라 혹평하다 나중에 그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가게를 떠났다는 일화도 있다. 이처럼 이 그림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료나 유사한 미술사조에 속하는 화가들이 보기에도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엔 턱없이 형편없는 그림이었다.

가난한 화가가 생계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을 그려야 했음에도, 그가 이와 같은 주제의 그림들을 그렸다는 사실은 바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화폭에 담기 위함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성공한 화상이자 유일한 조력자였던 동생 테오와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외양간 그림이 퇴비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해로울 일은 없다. 외양간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농촌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서 들판의 잘 익은 밀이나 감자 그리고 퇴비와 비료의 향기가 풍긴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썼다.

고흐에게 미술은 그의 삶 자체였다. 고흐의 영혼은 노란 밀밭 위 날갯짓하는 까마귀와 같았다. 세상의 관습과 편견,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기성의 관념, 애착 그리고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내려놓은 채, 서른 일곱 해 삶을 거두고 어두운 푸른 하늘을 날아올랐다. 찰나의 삶, 고뇌와 번민 그리고 작은 깨달음을 담은 여러 통의 긴 편지 그리고 다수의 그림들…. 그는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과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이런 내적인 정서를 독특한 그 자신만의 색채와 필치로 구사하였다.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고 썼다. 고흐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의 고통 받고 슬픈 모든 영혼을 신에게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에게 구원은 일체의 고통 너머 밝은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외양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미와 추를 구분하는 고정 관념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박하여 스스로를 감옥으로 이끌고, 내면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한다. 고흐 이후 이제 현대예술은 외부 대상을 닮게 그리려는 재현(representation) 대신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 비록 반 고흐가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졌을지라도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분별심을 내려놓은 곳에서 비로소 얻어지는 깨달음처럼, 반 고흐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소박한 작품 앞에서 참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난다. 조주 선사의 공양도,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도 분별을 벗어나 '깊게 여며진 아름다움' 을 바라보라 경책한다.

〈건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참된 부자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② **빈자일등(貧者一燈)과 자행속수(自行束脩)**



그림 · 박구원

가난 속에서 꽃피는 따뜻한 인정

이백의 말마따나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바람을 쐬고 싶을 만큼 무덥던 여름이 언제인가 싶게 지나갔다. 이제는 내가 사는 남녘 땅 남해에서도 밤이면 한기가 느껴질 만큼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 음양의 이치는 서로 상응하는지라 더운 여름에 값하는지 올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살을 에는 혹한이 몰아친다면 넉살 좋은 이백도 이빨이 깨지도록 덜덜 떨면서 평형(烹刑)이라도 당하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지도 모르겠다.

몸이 추운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마음이 추우면 괴로움을 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누구는 질리게 잘 살아 더울 때는 춥게 살고 추울 때는 덥게 살면서, 부유함을 당연한 혜택으로 알며 살아간다. 그러나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들은 더위도 끔찍하고 추위는 지옥살이다. 열탕(熱湯) 지옥이란 말은 있어도 혹한(酷寒) 지옥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사람에게는 추위보다 더위가 더 고통스러운 것인가 보다. 그러나 열대야에 허덕이다 죽었다는 사람은 없고 강추위에 동사했다는 사건은 접하니, 추위가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추위가 야금야금 에워싸는 이 즈음이면 늘 떠오르는 작품이 있으니, 오 헨리가 쓴 〈경찰과 송가〉란 단편소설이다. 추위를 피해 감옥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다 다 실패하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고 개심(改心)하니 덜컥 경찰에 잡혀 3개월 구류형을 선고받는다는 얘기다. 누구보다 인생의 추위를 톡톡히 맛본 오 헨리여서 그런지, 그는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풀어놓았다. 물론 주제야 가난이 인간을 결코 불행하게는 못한다고 역설하는데, 위로는 되지만 대안일 수는 없다. 누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고 싶겠는가. 옛날 선비들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역설했고,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부자가 천국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기보다 힘들다"고 했지만, 어찌 보면 다 배부른 자들의 궤변처럼 들린다.

그러나 적빈(赤貧)의 삶과 지족(知足)의 삶이 평범한 사람들과 동떨어진 거룩한 수행자의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어 아무리 부유해도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진짜 가난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위만 보고 사는 건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을 가난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썩은 동아줄일 뿐이다. 가난한 이들도 진실로 평등했던 시절, 아니 가난했지만 삶을 긍정하면서 이웃과 인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시절과 세상에서 살던 사람은 없었을까?

가난한 난타가 가장 부유했다는 역설

그럴 때 누구나 한번쯤 머릿속에서 그렸을 법한 이야기가 '빈자일등'이 아닐까? '가난한 사람의 등불 하나'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현우경(賢愚經)〉의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 나온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의 어느 정사(精舍)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위대한 각자(覺者)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곳 사람들이 저마다 정성을 다해 값지고 화려한 예물을 준비했다. 그러나 정성은 하늘보다 높아도 품에는 동전 한 닢 없는 사람도 있었다. 떠돌며 구걸로 살아가던 가난한 여인 난타(難陀)가 그랬다. 난타는 맥이 빠져 털썩 주저앉아 슬프게 중얼거렸다.

"나는 전생에 저지른 업보 때문에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태어나 삶이 부끄러운데, 죄업을 씻을 기회가 왔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모처럼 고마우신 스님을 뵙게 되었는데도 공양을 드릴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나 슬픈 일이야."

심성이 고운 여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하루 종일 시장과 골목을 떠돌며 구걸해서 겨우 한 푼 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 돈은 한 종지 기름을 얻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기름집 주인이 혀를 끌끌 찼다.

"여인이여. 이 돈으로는 맑은 물 한 그릇도 살 수 없네. 가난한 그대가 어디에 쓰려고 기름을 찾소?"

어깨가 축 처진 여인이 힘없이 대꾸했다.

"오늘 우리 마을에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의 법문을 듣고 축복을 받으면 다음 생의 제 삶이 이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정성으로 드릴 게 제게는 아무 것도 없답니다. 이 돈이 제가 가진 재산 전부인데, 기름 한 종지도 살 수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여인의 애를 끊을 듯한 넋두리를 들은 기름집 주인은 여인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저 여인보다 만 배는 더 부유할 텐데, 마음 씀씀이는 만 분의 일도 못 되는구나. 저 여인을 돕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한 푼 돈을 받은 기름집 주인은 가장 좋은 기름을 넉넉하게 떠서 여인에게 주었다.

기름을 받은 여인은 예쁜 등을 하나 만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바쳤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바친 것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여인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등불이었다. 갈 곳이 없는 여인은 등불의 꽃밭 곁을 지키면서 합장한 채 밤을 지새웠다.

가르침에 차별을 두지 않은
부처와 공자, 빈곤 아픔 치유
상대적 빈곤 여의고 행복 찾자

그날 밤 그곳에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한 등불은 하나둘 꺼졌고, 밤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런데 그 수많은 등불이 다 앙상한 심지를 보였어도, 가난한 여인 난타가 바친 등불만은 흔들림 없이 새벽까지 남아서 홀로 세상의 어둠을 지워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 등불은 무슨 신령한 힘이 있어 풍파에도 불꽃을 잃지 않는가? 너무나 갸륵한 일이구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부처님도 밖으로 나오셨다. 동녘에서 떠오르는 햇살보다 더 환하고 더 멀리 한 등불이 빛나고 있는 거룩한 광경을 보셨다.

"부처님, 정말 신통방통하네요. 밤새 그 바람몰이에도 이 등불만 제 구실을 다합니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등불을 바라보았다. 그때 난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무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바로 제가 올린 등불이 부처님의 전신을 묵묵히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꺼운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아로새긴 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제가 올린 등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빛을 잃지 않은 걸까요?"

사정을 소상하게 들은 부처님은 감격에 몸을 떠는 여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대중을 보며 말씀하셨다.

"누구의 등불인들 고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것이 등불이지만, 이 여인의 등불이 담은 빛은 기름만 타올라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부처가 되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난한 여인 난타를 거두어 비구니로 받아들였다.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탈바꿈했던 것이다. 진실한 평등과 삶을 긍정하면서 인정을 잃지 않으면 가난한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가난한 여인 난타만큼이나 기름집 주인의 선행도 잊을 수 없다. 넉넉하게 기름을 희사한 기름집 주인도 참된 부자였고 거룩한 사람이었다.

가난도 배움의 열정을 꺾지는 못한다

〈논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논어〉 '술이편'과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 그것이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한 묶음의 포를 예물로 가져온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노라."(子曰 自行束脩以上은 吾未嘗無誨焉이로라)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일단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느니라."(子曰 有敎면 無類니라)

부처님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공자 역시 참된 삶의 길을 열었다. 공자 문하에는 3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 많은 제자가 다 부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의 열정이 떨어질 리는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원하는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은 축생들이 사는 지옥일 것이다.

위에 나오는 속수(束脩)는 보잘것없는 예물을 말한다. 수(脩)는 포(脯), 즉 가늘게 썬 고기를 말하는데, 그 가는 고기 열 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 속(束)이다. 한 속의 포라면 아주 작은 양이다. 공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물품이라도 배움의 정성을 보여준다면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침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과연 '속수'의 정성을 보여 문하에 들어온 제자가 누굴까 떠올려 본다. 먼저 '안빈낙도'를 실천했다는 안연(顔淵)이 생각나지만, 그보다는 번지(樊遲)라 불린 제자가 장본인일 것이라 믿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던 번지는 그리 총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배움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가난한 번지가 들고 갈 수 있는 예물은 속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제자로 받아들여졌고, 스승의 수레를 모는 역할을 맡았다.

가난했지만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행복을 찾은 이들이 있다면 가난한 여인 난타와 가난한 학생 번지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소설가〉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敎 大京曺溪宗

종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인욕·실천’ 禪사상, 혜가로 이어지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② 달마의 선사상과 혜가

현대적 감각서 본 달마의 禪

달마가 중국에 들어온 무렵, 승주(480~560)뿐만 아니라 화북의 수행자들은 백골관(白骨觀)이나 부정관(不淨觀) 수행법을 닦았다. 이에 〈속고승전〉의 저자 도선은 ‘보리달마의 선법은 이론적인 반야(般若) 사상에 기초를 두면서도 벽관(壁觀)이라는 실천으로 새로운 경지를 펼쳤기에 대승벽관(大乘壁觀) 공업최고(功業最高)’라고 극찬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달마가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로 받들어지기도 한다. 달마의 선법을 전하는 최고의 문헌은 돈황본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인데, 이를 토대로 보자.

#이입(理入)

“무릇 도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그 요문(要門)으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四行]),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이입이요, 두 번째는 행입이다. 이입이란 경전에 의해서 도(道)의 근본정신을 깨닫고 범부와 성인이 모두가 동일한 진성(眞性)을 가지고 있다고 깊이 믿는 것이다. 다만 객진(客塵[번뇌])으로 뒤덮여 있어 능히 나타나지 못한 것이니, 만약 망(妄)을 버리고 진(眞)으로 돌아가 벽(壁)과 같이 주(住)하여 스스로 마음을 관(觀)하여 자신과 상대가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 범부와 성인이 하나로 평등해진다. 이에 여여부동(如如不動)한 경지에 머물러 언교를 따르지 않으면서 적연무위(寂然無爲)함을 이입이라고 한다.”

경전에 의해 도의 대본을 파악한다고 하여 자교오종(藉敎悟宗)이라고 본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강을 건넌 뒤에 뗏목처럼 경전의 이론을 의지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다. 경전에 의해 일체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음을 깊이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닌 곧 실천인데, 이 실천이 곧 벽관(壁觀)이다. 한 마디로 대승경전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성불 · 본각(本覺)임을 설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깨달아있는 부처임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 이입이란 안심(安心)이며 안심이란 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벽관은 번뇌나 허망이 접촉할 수 없는 근원적인 마음인 안심의 상태에 되돌아가 안주하는 실천법을 말한다.

#행입(行入)의 4행

달마가 수행자로서 네 가지를 실천하라고 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행은 구체적인 실천 형태를 말하지만, 우리네 삶과도 밀접하므로 전문을 보기로 한다.

“보원행(報寃行)이란 무엇인가.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내가 과거 무시이래로 수만 겁 동안에 수행을 하지 않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일을 많이 지었으며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이는 전세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과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인욕한다면,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경전에 이르대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는다. 근본을 알고 통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치와 더불어 상응해 원망을 체달하고 도(道)를 증득할 수 있다.”

보원행 내용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굳이 수행만이 아닌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살면서 어찌 꽃길만이 펼쳐지겠는가? 인생은 가시밭길이 더 많은 법이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제일 많다. 이 때마다 상대방을 원망하면, 그 원한과 고통은 배가 된다. 그러니 원망과 증오 · 번뇌로운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의 전생업보 때문이니 ‘빚 갚는다’ 고 여기고, 인내하라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경을 수지하고 독송할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과거의 업장을 한꺼번에 소멸하는 계기이니, 더 열심히 독송하라.’

“수연행(隨緣行)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자아가 없으며 인연의 업(業)에 따를 뿐이다. 고통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 모두 인연에 따라 받는 것이다. 만약 좋은 일이나 명예 등의 일을 얻으면 이는 과거세의 지은 선업으로 인해 금세에 받는 것이다. 이것도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할 것이 있겠는가. 좋고 나쁜 것도 다 인연에 따르며 마음에 증감(增減)이 없기 때문에 기쁜 일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윽히 도에 따라야 한다.”

명나라 말기 유학자인 육상객이 이런 말을 하였다. “초연한 마음가짐을 갖고, 사람을 대함에도 초연하며… 성공했을 때는 담담하고, 실패하더라도 태연하라(自處超然 處人超然… 得意澹然 失意泰然.)”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힘든 역경이 있으면 이 또한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인연이 다하면 곧 사라질 것이니 너무 들뜨지 말라는 것이다. 사바세계의 삶이 어찌 내 뜻대로 되겠는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복되어 찾아오는 법이다. 이렇게 삶의 순역(順逆)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불도의 실천이다.

“무소구행(無所求行)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을 구(求)라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됨을 깨닫고, 이 진리로서 세속적인 것을 꺼리며 마음을 무위(無爲)에 두고, 몸을 흐름에 맡겨 움직인다. 공덕천과 흑암녀가 함께 다니며 서로 따른다. 삼계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이곳은 마치 불난 집과 같다. 육신이라는 것이 다 고통인지라 누가 이곳에서 편안하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에 생각을 쉬고 구하지 말지니라. 경전에 이르대 ‘구함이 있으면 고통이요, 구함이 없으면 낙이다’라고 하였다. 구함이 없는 것이 바로 참된 도의 행(行)이다.”



2조 혜가가 눈오는 날, 달마에게 팔을 잘라 보였음을 의미하는 소림사 경내의 ‘입설정’ 당우.

‘이입사행론’서 달마 사상 종합
보원 · 수연행, 인욕 수행 의미해
무소구 · 칭법행은 무집착 실천
일상적 삶에서 실천 방법 제시

〈유마경〉에서는 ‘법(法)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무언가 구하지 말라’ 고 하였고, 임제는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무사(無事)라고 하였다. 이것이 무주(無住)요, 무심(無心)이다. 우리 일상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이다. 곧 삶에서 벌어지는 그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달마가 말하는 무소구행은 무엇이든 ‘추구하지 말라’ 가 아니라 지나친 집착을 삼가고 여여한 삶을 즐기라는 뜻이다.

“칭법행(稱法行)이란 무엇인가. 자성이 청정하다는 이치를 법이라 하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상이 공(空)이고, 번뇌와 집착도 없으며 피차(彼此)가 없는 것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법(法)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 중생이라는 번뇌를 여읜 때문이다. 법에는 자아가 없다. 자아의 때(垢)를 여읜 연고니라.’ 이런 법을 의지하고, 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칭법행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종합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 첫째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구족하고 있으므로 깨달아 있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는 공의 실천적인 측면에 입각해 공관(空觀)에 투철하여 6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금강경〉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이는 보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상지계(無住相持戒) · 무주상인욕(無住相忍辱) 등 6가지 바라밀을 주(住, 집착이나 관념의 의미)하는 마음 없이 실천하라는 뜻이다. 즉 집착심 없는 공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4행을 통해서 본 보리달마의 선사상을 종합해보면, 보원행과 수연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욕 수행을 말하고, 무소구행과 칭법행은 무집착의 실천을 가리킨다. 4행은 고요한 곳에서만이 아닌 일상적인 삶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제시라고 볼 수 있다.

달마의 法은 혜가에게

앞에서 달마의 제자들에 대해 언급했었다. 달마의 법을 받은 2조 혜가(慧可, 487~593)를 만나보자. 혜가는 달마를 만나기 이전부터 출가자 신분으로서, 꽤 늦은 나이에 출가했다. 혜가는 희(姬) 씨요, 향산사(香山寺) 보정 스님에게 출가했다. 40세 무렵, 선정 속에서 ‘큰 선지식이 있거늘 여기에만 있느냐’ 는 소리를 관(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신광(神光)’ 이라 고친 뒤, 달마를 찾아 귀의했다. 당시 인도에서 온 외국 성인을 스승으로 정하고, 법을 구하고자 했으니 혜가의 안목 또한 높이살 만하다. 눈발이 날리는 속에서 혜가가 스승 달마에게 예를 표하고, 달마에게 물었다.

“스님, 저의 마음이 너무 편안치 못합니다. 스승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리라.”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覓心了不可得).”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케 해 마쳤느니라.”

-〈경덕전등록〉 中

위의 선문답을 ‘안심(安心)법문’ 이라고 한다. 규봉 종밀(780~841)도 〈선원제전집도서〉에서 달마를 선종의 개조(開祖)라고 보았는데,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곧 안심을 말하는데, 달마의 안심은 곧 능가종(楞伽宗, 胡適(1891~1962)박사가 붙인 종명)의 근간이요, 멀리로는 중국 선종에 흐르는 핵심적인 물줄기다.

달마의 〈오성론(悟性論)〉에서는 “탐진치 3독이 곧 불성으로서 3독 이외에 다시 별도로 불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 〈유마경〉에서는 “번뇌와 악을 지닌 인간의 현실이 곧 해탈을 달성하고 성불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고원이 아닌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번뇌 자리에 불성이 자리 잡고 있다. 번뇌를 끊고 나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얻을 필요도 없는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열반을 찾을 필요도 보리를 구할 필요조차 없는 근본 마음자리가 안심이다.

그는 달마에게서 ‘혜가’ 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는 스승 대신 마을에 내려가 걸식, 탁발을 해다가 스승을 섬겼다. 어느 날 혜가가 달마에게 물었다.

“스님, 어떻게 공부해야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으며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가느니라.”(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속고승전〉 ‘습선편’

밖의 인연을 끊고, 안의 마음도 쉬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예전에는 예사로 보았는데, 절실히 공감된다. 혜가는 6년간 스승을 섬기며 달마에게 가르침을 받고 법을 전해 받았다. 달마가 입적하자, 그의 유골을 강기슭에 묻었다. 혜가는 업도(鄴都, 현 하북성 임장현과 하남성 안양시 일대)에서 선법을 진작하며, 교화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당시 주변 사람들은 혜가의 선법을 마어(魔語)라고 하며, 그를 비방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을 전한 도의(道義) 국사(?~825)와 유사하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가 당나라에서 서당 지장(西堂智藏, 738~817)으로부터 법을 받고 돌아와 선을 말하자, 사람들이 ‘마어’ 라며 비난하였다. 그래서 선각자는 외로운 법!

달마에게 법을 받은 2조 혜가의 선사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있다. 향거사(向居士)가 자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뒤 혜가에게 해답을 구하였다. 혜가는 “무명(無明)과 지혜(智慧)는 서로 다르지 않으니 만법이 모두 이와 같다(無明智慧等無異 知萬法卽皆如)”고 대답하였다.

즉 ‘무명과 지혜, 번뇌와 보리는 같은 것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무명과 지혜, 중생과 부처를 구별하는 것은 두 가지 견해에 집착되어 있다’ 는 것이다. 이 말은 스승 달마의 선사상과 같은 것이요, 이 사상이 후대 조사선의 선사상이다. 호(好) · 오(惡), 명(明) · 암(暗), 번뇌 · 보리, 생사 · 열반, 옳고 그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인 자리이다. 또한 안심 자리가 불안한 마음자리요, 무명의 자리가 바로 지혜인 자리이며 중생이 곧 부처이다. 혜가는 달마의 가르침(安心)을 계승해 이견(二見)에 집착하지 말 것을 설하였다.

혜가에겐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법은 승찬(?~606)에게 전해졌다. 혜가는 법을 승찬에게 전하고, 업도에서 천민들과 어울리며 막행막식하였다. 이런 혜가를 이해하지 못한 대강사 변화법사가 재상에게 밀고를 함으로써 혜가는 처형당해 입적하였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우리도 불보살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



新 불교사자성어

④ 화안애어(和顔愛語)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말씨' 또는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말씨'라는 뜻이다.

'한자(漢字)'는 중국에서 만든 문자이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한자의 장점은 넉 자(四字)를 조합하면 무엇이든지 100%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하드라마 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한 시대의 사회상도 넉 자 속에서 해결한다. 넉 자면 무엇이든지 다 담아낼 수 있는 문자는 아마 한자밖에 없을 것이다.

항우와 유방의 '장강만리도(長江萬里圖)' 같은 싸움도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네 글자 속에 압축하고, 오나라와 월나라의 끔찍한 20년 전쟁도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네 글자 속에 집어넣는다. '겨자씨 속에 수미산(우주)이 들어간다[須彌入芥子中]'고도 한다.

표의문자인 한자로 압축된 사자성어의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화안애어(和顔愛語)'를 '웃는 얼굴에 부드러운 말씨',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말씨'라고 했으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달리 재주도 없다.

얼굴이 그 사람을 말해 주듯이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백 번 가량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내는 족족 서류심사에 합격했으나 꼭 면접에서 낙방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인상 때문일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얼굴, 좋은 인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까칠하고 차가운 얼굴, 우울하고 저승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따뜻한 말투로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항상 퉁퉁 거리는 말투, 곧 시비를 걸어올 것 같은 까칠한 말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인상이나 말씨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인격,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말해 주기도 한다.

대체로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까칠한 사람, 차가운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생각)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화안애어(和顔愛語)'는 대승경전인 〈무량수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이다. '화안애어'는 법장보살이 쌓은 보살행의 하나로, 곧 불보살의 너그럽고 자비스러운 얼굴을 가리킨다.

우리도 부처님이나 보살처럼 그런 얼굴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못하는 것은 핑계이고 하기 싫어서, 마음을 먹지 않아서일 뿐이다.

우리는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줄 모르게 되고, 세상을 이해할 줄 모르는 것은 이기주의, 아집,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공자는 논어에서 '소인'이라고 했다. 소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음, 유머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다. 친절도 면에서는 불친절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까칠한 말투, 불쾌한 말투를 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불필요한 자존심, 에고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안애어'는 품성이고 인격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습관적, 혹은 무심코 내뱉는 까칠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결정적일 때 낭패를 맛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정적인 순간, 언제 그 사람을 또 만날지 모른다. 입버릇이 나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 '구시화문(口是禍門)',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인자한 얼굴, 고운 말씨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 이유 없이 욕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 싸늘하고 냉정한 얼굴, 싸움닭처럼 까칠한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내지 않는 얼굴[和顔], 사랑의 말[愛語]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화안애어(和顔愛語)'는 곧 불보살의 마음과 얼굴이고 자비심의 완성이다. 그런 세상을 경전에서는 불국토라고 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송골매가 비둘기를 잡는 것



격절록 강설

④ 덕산시중화 평창 2

이번에는 1칙 '덕산시중화'에 대한 두 번째 평창으로 원오 선사가 덕산과 암두의 문답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기특(奇特)이라는 선가의 용어를 빌어 1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

[評唱 2]

一日巖頭來參 纔展坐具 德山以拄杖拋向堦下. 巖頭下堦收得 便去參堂. 來日却上問訊 侍立次 山云 "你什麼處學得這箇虛頭來" 巖頭云 "某甲不敢自謾" 山云 "你已後向老僧頭上屙去在" 且道 他見箇什麼. 却不打他 豈不是有奇特處. 方可如此.

하루는 암두가 참례하러 와서 좌구(坐具)를 펴자, 덕산이 주장자로 섬돌 아래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암두가 섬돌 아래로 내려가 줍고는, 바로 승당(參堂)으로 가버렸다. 다음 날 (방장실에) 올라가 안부 인사를 하고 모시고 서있는데, 덕산이 말했다.

"너는 어디서 이런 쓸 데 없는 것을 배웠는가?"

암두가 말했다.

"저는 감히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덕산이 말했다.

"너는 이후 노승의 머리에다 똥을 쌀 것이다."

자, 말해보라!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도리어 그를 치지도 않았으니, 어찌 여기에 기특처(奇特處, 대단한 곳)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특처가 있어야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巖頭一日來參 脚纔跨門 便問 "是凡是聖" 德山便喝 巖頭便禮拜. 且道 他父子見箇什麼. 便如此奇特 五祖先師道 "他既是開箇鋪席"

암두가 하루는 참례하러 와서 다리를 문에 걸치자마자, 바로 물었다.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덕산이 바로 "할(喝)!" 하자, 암두가 곧 절을 했다.

자, 말해보라! 저 부자(父子)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이와 같이 기특했기에 오조선사(五祖先師, 오조법연)는 말하기를 "그는 이미 가게(점포) 하나를 열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為什麼却不答話. 且道 德山意在什麼處. 這僧也好奇特 跳出眾來便禮拜 德山便打 一似鷹拏燕雀 似鶻捉鳩.

어째서 (덕산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자, 말해보라! 덕산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스님도 기특해서 대중에서 뛰어나와 바로 절을 했지만, 덕산이 바로 친 것이야말로 마치 매가 제비나 참새를 잡는 것과 같고, 송골매가 비둘기를 잡는 것과 같다.

*참고로 선가에서 쓰는 기특(奇特)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問 "如何是奇特事" 師云 "獨坐大雄山" 僧禮拜 師便打.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사(奇特事)입니까?"

선사(백장회해, 749~814)가 말했다. "대웅산(大雄山)에 홀로 앉는다."

그 스님이 절을 하자, 선사가 바로 쳤다.

*오조선사(五祖先師)는 원오의 스승인 오조법연(五祖法演 1024~1104)을 뜻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④ 믿음(信) 편 4

신앙에도 질(質)이 있다

종교는 경험이나 분석을 통해 옳고 그름이나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는 체계다. 종교가 지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의 체계라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생을 외치면서 집단자살을 행한 모 종교단체의 행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을 좀 더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구제프(Gorge Gurdjieff · 1877~1949)에 의하면 믿음에도 질적 구분이 있다고 한다. 그는 신앙을 기계적 믿음(mechanical faith)과 정서적 믿음(emotional faith), 그리고 자각적 믿음(conscious faith)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계적 믿음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유형이다. 기계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교회나 성당, 절 등을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이다. 이런 신앙은 자기 성찰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치하다고 할 수 있다. 구제프는 이런 믿음을 어리석음(foolishness)이라고 하였다.

정서적 믿음 역시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유형이다. 사람들은 종교가 지니는 정서에 영향을 받아 귀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가 좋아서 불교를 믿기도 하고, 교회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매료되어 개신교를 믿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유형에서 주연은 종교적 정서가 되며 우리 자신은 조연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구제프는 정서적 믿음을 노예(slavery)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각적 믿음은 내가 왜 종교를 믿는지, 종교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는 유형이다. 이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깨어있는(conscious) 믿음이다. 구제프는 자각적 믿음을 자유(freedom)라고 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신앙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과 노예적 사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종교를 주체적으로 신앙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도 성장하고 익어간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나 절을 다닐 때의 신앙과 어른이 되어 종교를 믿는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어릴 때는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르거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어머니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신앙의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지적 수준이 어린 아이의 상태라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어른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문다면 종교적 삶이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직 기복만 남게 된다.

입시철만 되면 우리나라 교회나 성당, 사찰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나 붓다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종교 집단에서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신앙에도 분명 질이 있다. 내가 믿는 종교가 내 삶에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유치하고 위험할 뿐이다. 어른다운 신앙, 자기 성찰이 담긴 신앙, 제대로 익은 신앙에서 인격의 향기가 나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을까? 어리석음의 잠으로부터 우리의 삶(生)이 깨어날(覺) 수 있도록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 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나와 세상을 바꾸는 불교, 베품과 자비·지혜의 가르침

2019학년도 불교학과 54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목요일오후2시]
저녁반 [매주목요일오후7시]
통신반 [녹음CD배송 (동산불교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음원으로 강의 청취 가능)]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정토사상 6.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법산 경일대종사(학장),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정성준 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1) 8. 불교문화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2) 11. 반야사상 12. 유식사상
	교수진	이미령 교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묘주스님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저녁반·통신반 각 30명)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1통, 반명함판사진2매, 입학금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19일 ~ 3월 6일
■문 의 : (02)732~1206~8
*2년 과정 졸업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개강
•행복한 화엄경 3월 5일(화) 오후 7시
•유 마 경 3월 5일(화) 오후 8시 20분
•대 반 열 반 경 3월 7일(목) 오전 11시

불교 관련학과 개강
•불교다도학과 3월 5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 3월 6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 3월 9일(토) 오후 2시/4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부처님과 인싸 되기' 수련회

법륜사, 삼독 이겨내는 지혜 주제

용인 법륜사는 1월 12~13일 '부처님과 함께 인싸 되기' 라는 주제로 어린이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인싸' 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사이더(insider)' 의 줄임말로 통용된다.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을 칭한다.

법륜사 겨울수련회는 △염주알 옮기기 △순수 지혜 찾기 △지혜의 성 쌓기 △욕심 버리기 △발우공양 △별자리 보기 △눈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도왔다.

수련회에는 어린이 50명을 비롯해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혜운 스님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싸' 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탐진치 삼독을 지혜로 이겨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보자는 의지 등 여러 가치를 심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인재 청암인 거듭나길"

청암사승가대학 졸업식… 31명 배출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1월 19일 경내서 제33회 청암사승가대학 · 제11회 율학승가대학원 및 연구과정 졸업식을 개최, 총 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청암사는 또한 계간지 〈청암〉 100호 발간 기념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지형 스님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니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여법하고 정직한 청암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간지 〈청암〉은 1994년 창간호 발행 이후 25년 만에 100호를 발간했다. 100호에서는 "동문 스님들이 둘러앉아 경을 배우고, 차담을 하며 사연 많은 아흔 아홉 고갯길을 넘어왔다"며 100호 발간 영광을 청암사에 돌렸다.

이날 법회에는 청암사 율주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 지역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년 · 불자 인식 높여 實기증 이어지도록"

Interview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불자 의료지원 모금사업 및
대학생 골든벨 확대 개최로
조혈모세포 이식 60명 목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교육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자 환자를 위한 모금회를 신설하고, 대학생 퀴즈대회 등 시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는 1월 21일 서울 생명나눔 법인 사무실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은 "환자 치료비 특별지원, 전 지역본부 간 연계, 적극적인 홍보활동 장려를 목표로 삼고 생명나눔 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9년 생명나눔 주요사업에는 △생명나눔 자비 모금회 △생명나눔 희망골든벨 퀴즈 확대 △생명나눔 홍보대상 시상 등이 포함됐다.

일면 스님은 주요 사업 가운데 올해 신설된 '생명나눔 자비 모금회' 를 강조했다. 스님은 "자비 모금회는 지원대상이 불자로 특정된 의료비 후원 사업으로, 불특정 대상자를 위해 모금하는 '이달의 환우' 사업과 달리 불자 환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며 "사찰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모금된 후원금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불자들의 의료비를 월 1회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은 현장 캠페인 진행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비모금 홍보를 병행하게 된다. 장기기증사업팀 등은 매월 초하루 또는 사찰 행사시 먼저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을 방문, 신도 대상으로 후원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일면 스님은 대학생 퀴즈대회인 '생명나눔 희망골든벨' 을 확대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주제로 한 희망골든벨은 지난해 한국교통대학교 간호대학 축제 때 처음 시행한 이후 실제로 홍보 효과가 있었다"며 "조혈모세포의 경우 만 18세부터 40세 미만까지 신청 연령제한이 있는 만큼 등록 예정자인 대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퀴즈 형식이 제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혈병, 혈액암 등 난치성 질환 바로알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희망골든벨은 올해 전국 3~5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은 전국 5개 지역본부와 연계해 착한릴레이 참여 대학 중심으로 희망골든벨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생명나눔은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생명나눔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생명나눔 교육을,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기존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지자체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 연령층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일면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찾지 못해서 돕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희망등록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 5,000명(조직기증 2,500명) · 조혈모세포 3,500명을 모집 목표로 하고, 지난해 52명이었던 조혈모세포 실기증자를 60명으로 확대 연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종원 수석, 청와대불자회장 취임

"화쟁과 文정부 지향점 일맥상통"

청와대불자회장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공식 취임했다.

청와대불자회는 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윤종원 경제수석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을 존중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불회는 1996년 창립한 이래 23년간 청불회원 간의 불심을 돈독히 하고,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한국불교에서는 대립을 조화시키고 화합하는 자세를 화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포용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모든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비행의 정신 역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대선사께서 깨달은 이후 무엇을 구하게 되었느냐는 후학의 질문에 '동쪽 마을에 가서 나무가 되고, 서쪽 마을에 가서 말이 되겠다' 고 답하셨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인연에 따라 맡은 공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새겨도 좋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불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일치하는 만큼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청와대불자회가 불교계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선 수석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이 도탄에 빠지면 육바라밀 실천으로 중생을 구제했듯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청불회를 비롯해 한국불교, 대한민국이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혜안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불회 사무국장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박남현 前청와대 행정관은 법회에서 원행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승가회, 신년하례법회

1월 21일 대구 원광사서 30여 명 참석



사단법인 조계종승가회 승가원(원장 정인)은 1월 21일 대구 원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승가회 대승정 경보 대종사와 원로원장 월곡 스님, 종회의장 혜월 스님, 승가원장 정인 스님, 교육원장 일관 스님 등 회원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종단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심장병어린이 돕기 모연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올해 19회째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는 1월 18일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총무원 불광사 법당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에 심장병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승가회는 매년 2회 나눠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19회째를 맞았다. 승가회는 이와 함께 사단법인 출범을 알리는 창단식도 함께 개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원효 스님 유적 성지순례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연수 55명 참가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1월 19~20일 원효성사 행화유적 성지순례를 실시, 법사의 본분과 행원을 조찰보임하는 법사연수 구법학행을 개최했다. 55명의 참가자들은 원효 스님 탄생지부터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한 황룡사지 등을 참배하고, 원효 스님의 사상과 행원이 오늘날 법사상에 요구되는 사명 등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윤호섭 기자

옥천범음대학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19년 신(편)입생 모집

2019. 02. 11 —— 02. 27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전형일정 • 2019년 2월 11일 (월) ~ 2월 27일 (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❶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김태호 스님	수	30명
❷학년 [상주권공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인각 스님	월	편입생 약간명
❸학년 [각배]	각배과정	이기봉 스님	목	
❹학년 [영산]	영산과정	조현성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입학문의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www.okchunbud.kr Tel (02)392-3234, Fax (02)392-3239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반려동물도 극락왕생 가능할까?

日불교계 수년간 다양한 해석 쏟아져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1월 16일, 일본 인터넷 매체 '닛폰닷컴' 은 일본 불교계에서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극락왕생' 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 논의는 '반려동물은 사후 극락왕생 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 이라는 주제는 포교와도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중요한 문제다. 실제 일본에서는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나 기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신도들이 사찰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2016년 9월 교토에서 열린 '정토종 총합학술대회' 였다. 당시 정토종학연구소의 아다치 토시히데(安達俊英) 조교수가 "정토종의 개조인 호넨(法然) 스님은 동물인 채로는 곧바로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아다치 조교수는 "왕생은 칭명염불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정토교의 교리다. 그러나 동물은 축생도에 있는 중생으로 칭명염불이 불가능하기에 사후 곧바로 왕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동물이 극락왕생하기 위해선 다시금 인간의 몸을 받아 염불을 해야 한다는 논지다.

이에 현장에 있던 타이쇼대학 하야시다 코쥰(林田康順) 교수는 "호넨 스님은 동물이 회향(回向)을 통해 곧바로 왕생할 수 있다고 설했다"며 전면 반박했다.

하야시다 교수는 "설사 축생도에 떨어져 죽었다 해도, 살아있는 다른 이가 칭명염불이나 독경 등의 선업을 동물에게 회향하면 그 공덕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 정토종 학술대회 발단
타 종파도 영향 미쳐 '화두'
긍정 · 부정 입장 나뉘지만
반려동물 납골당 점차 증가

당시 이 논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타의 논제들을 제치고 가장 뜨겁게 논의돼 "정토종의 의견이 양분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논의는 정토종 외의 타 종파에도 퍼져나가 다양한 해석과 현행되고 있는 동물 천도재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다.

일본 천태종의 경우 "산천초목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교의에서 일찍이



반려동물 합동천도재를 지내는 간오지. 사진출처=닛폰닷컴

동물 천도재의 필요성을 주장, 대부분의 사찰에서 천도재를 허용하고 있다.

일련종은 동물 천도재, 혹은 사망한 동물들을 위한 법회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으나 일련종 개조인 니치렌(日蓮) 스님이 박해받던 자신을 대신해 죽은 개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전승에서 동물 천도재를 허용한다. 또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내용에 따라 축생도에 있는 동물이라도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사찰 가운데 반려동물의 천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거나, 전용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시내에 소재한 간오지(感応寺)는 13년 전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법회와 납골당을 개시했다. 간오지의 주지 나리타 쥰쿄(成田淳教) 스님은 "연간 사찰에서 접수하는 천도재와 장례법회의 46%가 반려동물을 위한 법회"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불교계에서는 동물의 사후세계와 극락왕생의 여부에 대한 학회와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정토종 내부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은 중생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중생들은 그저 본원을 믿을 뿐, 동물의 왕생여부는 아미타불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중립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불교 간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태국 사찰서 총기테러… 스님 2명 사망

이슬람 과격파 소행 추정, 스님들 탁발 중지 · 사찰 대기



총기테러가 일어난 사찰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태국경찰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지난 1월 18일 오후 태국 최남부의 나라티왓(Narathiwat)주 숭가이 빠이(Sungai Pai)구역의 사찰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 비구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익일(19일) 특보로 '더 네이션' 'AFP 뉴스' '타일랜드 하이퍼링크' 등의 외신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태국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각지에서 사망자를 동반한 폭력사건과 테러사건이 발생,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해당 사건과 관여된 이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취재에 응한 숭가이 빠이 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은 18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랏따나누빱(Rattananupab) 사원은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 소재하고 있다. 당시 검은 옷을 입은 10인 가량의 괴한들이 오토바이에 탄 채 라이플 소총을 들고 침입, 무작위로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2명의 스님이 현장에서 피살됐고, 이 중 한 분은 주지스님인 랏따나라끄 스님이다. 다른 두 스님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히며 태국 치안부대가 사찰에 도착했을 땐 테러범들이 도주한 후였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인근의 4개 지역에선 경찰과 치안부대명의로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 19일 오전부터 스님들의 탁발을 중지하고 사찰에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다.

사건의 배후로는 이슬람 과격파가 지목되고 있다. 나라티왓 지역을 비롯해 태국 남부 지역은 말레이계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곳으로, 2004년부터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사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민간인 희생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찰을 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불교사찰을 노리는 테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캐나다 불자, 포커로 딴 7억 '전액 기부'

2017년에도 상금 전액 기부
포커팬들 '영웅' 별명 부여



캐나다 불자 스캇 웰렌바흐는 바하마연방에서 열린 한 포커 대회에서 3위를 차지,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사진출처=포커뉴스

포커 선수인 한 불자가 게임을 통해 번 돈을 자선사업에 전액 기부해 화제다.

캐나다 할리팩스 출신의 스캇 웰런바흐(Scott Wellenbach · 67)는 최근 바하마연방(Bahamas)에서 열린 포커대회 '포커스타즈 캐리비안 어드벤처' 에서 3위를 차지, 상금 67만1240달러(한화 약 7억5313만원)를 기부했다고 영국 일간매체 더가디언이 1월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캇은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포커게임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라며 "나는 어떻게든 현명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돈이 타인과 동물 등 다른 중생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포커뉴스닷컴(PokerNews.com)에 밝혔다. 포커게임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문제를 기부를 통해 해소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 불교 덕분에 이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 삶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를 처음 접한 그다. 현재 스캇은 직접 티베트 불교 경전을 연구, 번역하는 불교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포커 훈련을 위해서 매일 1시간 이상의 명상에도 임한다고.

스캇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불자로서 불교와 명상을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게임 성과의 공(功)을 '불교' 에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포커와 불교 교리는 상충된다. 포커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큰돈을 따면 그것에 쉽게 중독되고 통제력도 잃게 된다"면서 "하지만 불교 공부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액은 네팔 및 티베트 불교 단체, 빈곤 해결 구호단체 '옥스팜(Oxfam)' , 국경없는의사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그는 2017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포커대회에서 17위를 차지했을 당시에도 상금 7만2176달러(한화 약 8100만원)를 기부했다. 해당 기금은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현재 '영웅' 이란 별명을 얻고 전 세계 포커 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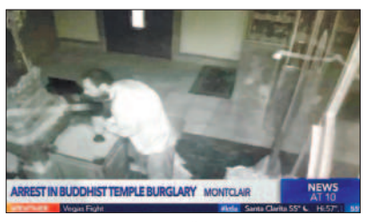
美 '보시함 절도'에 '훼불'까지

캘리포니아 · 뉴욕서 사건사고, '증오범죄' 의혹

미국 캘리포니아 온타리오(Ontario)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보시함 절도사건' 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약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보시금을 훔쳐 달아났으나 CCTV에 포착돼 체포됐다.

KTLA에 따르면 다니엘 원(32)은 미국 불교사원에서 1월 15일(현지시간)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18일 체포됐다. CCTV 화면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께 법당에 침입한 뒤 돈을 꺼내 배낭에 담아 달아났다.

KTLA는 "경찰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벌여 용의자의 혐의를 밝혀냈다. 남성은 체포 직후 웨스트밸리 구치소에 수감됐다"면서 "용의자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는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확실한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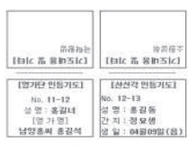
불교사원에서 보시금을 절도 중인 용의자 다니엘 원이 CCTV에 찍힌 모습. 사진출처=KTLA방송 갈무리

한편 지난 16일에는 뉴욕 퀸즈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해 미국 불교계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CBS뉴욕에 따르면, 30대 남성 용의자는 이날 퀸즈 플러싱 지구에서 한 중국 불교사원에 무단 침입,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불상을 훼손했다. 해당 남성의 훼불행위는 CCTV에 찍혀 경찰이 수배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종교혐오 사건으로 판단, 증오범죄특별반에서 조사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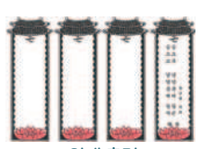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5〉 깨달음을 얻는 법

깨달음 드러내면 승가에 차별 낳는다

지난 법문에서 저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예류과를 얻으면 자신이 존재한다는 유신견이 사라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보다 바른 견해에 다다르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한 첫해에 아잔 차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했던 즈음에 아잔 차 스님은 자신의 사원이 망고 과수원이고 그 망고 나무들은 부처님이 심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부처님은 태국에 가지도 않았고 2,500년 전에 심은 망고 나무가 남아 있을 리도 없습니다. 모두 방편적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망고 나무에 수천 개의 망고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고 향기로운 망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기어올라가서는 결코 망고를 딸 수 없으며 무엇을 던지거나 나무를 흔드는 것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망고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고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뿐이고 그렇게 있으면 망고가 저절로 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잔 차 스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 밑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야 망고가 떨어집니까? 그리고 망고가 떨어진다고 해도 벌린 손 안에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떨어진다면 아마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후에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열반을 얻기 위해 나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기어올라가서도 안 되고 사다리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으면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나무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였는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노력할 것이고 어쩌면 밤을 새워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좌절하게 되면 그때 저의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무를 흔들지 마십시오. 그저 나무 밑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 손에 떨어집니다.



깨달음 얻기 위한 많은 노력
시간 낭비 이어진 사례 많아
바른 견해 시작으로 얻게 돼
다만 깨닫고 침묵 유지해야

견해–인식–생각의 순환

예류자가 되면 승가에 대해 커다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승가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승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승가라는 것은 부처님이 남기신 유산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유에서 상좌부 전통에 비구니 승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유산 중의 일부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류자에게는 여전히 탐진치의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무아를 이해한 예류자의 단계에서 어떻게 욕심이나 분노 같은 번뇌가 남아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견해가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이 다시 견해를 강화시킵니다. 그런 악순환을 통해 인지 과정의 왜곡이 지속되고 강화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견해가 경험과 생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모든 경험을 다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째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에 반대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신이 없다는 어떠한 증거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견해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인식에서 받아들인 일차적인 정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인식한 것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멸의 자아, 우주적 의식, 궁극적 존재, 죽지 않는 불사의 마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수행 중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도반 스님 중에도 불사의 마음에 대해 가르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좋은 스님들인데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맞추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의 견해를 반박하면 그들은 저도 깊은 수행을 경험하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어쩐지 기독교인들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면 그 견해에 따라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믿으면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불멸의 자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견해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왜곡의 악순환을 부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깨는 방법은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장애가 없으면 더 이상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기대하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류자가 되면 장애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다시는 전에 가졌던 견해대로 세상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의 여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견해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 첫 번째가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경전에서는 예류자를 '견해를 구족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견해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견해를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라는 버스에는 운전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예류자가 되면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바른 견해를 잊기도 합니다. 오래된 습관이 모습을 드러내어 바른 견해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는 예류자였지만 부처님이 편찮으실 때는 법이 온통 분명치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실 때는 문틀에 기대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예류자 상태의 좋은 예입니다. 예류자는 바른 견해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류자는 성인에 포함되지만 마음이 가끔씩 옛날 방식과 옛날 생각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바른 견해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바른 견해의 힘이 강해지면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마음가짐'이 정화됩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번뇌가 없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라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고 바른 인식으로 바른 견해를 보완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상윳따 니까야〉의 '케마까 경'에는 불환자와 아라한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환자가 된 사람은 인식이 정화되어 있지만 간혹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케마까 경'에는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위해 사용했던 세제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미세하게 아직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형태가 아니라 생각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가 불환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자가 선정에 집착하는 위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수행자는 선정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에 대한 집착은 불환자가 아라한이 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집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른 견해를 통해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합치해서 더 이상 바라는 마음도 없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라한입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신이 불환자나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환자나 아라한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침묵하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비구니 스님은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부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번 말하면 나머지 평생 동안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인생을 소비할 것이다."

부처님은 승려들이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도 자신이 깨달았다고 재가 신도에게 말하는 것을 계율로 금했습니다. 승려가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은 승가 안에 차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가의 구성원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해져야 합니다. 신도들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누가 깨달은 스님이고 누가 범부인지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동등하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침묵을 지키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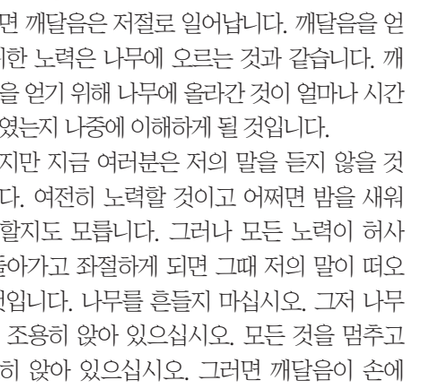
이것이 이 명상 수련회의 마지막 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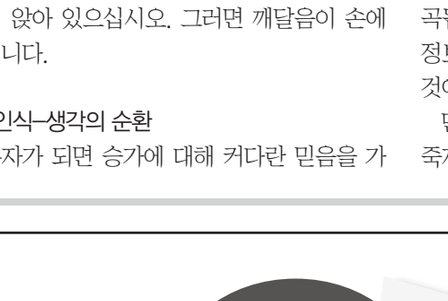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그대로 충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라

여러분과 오늘, 새해에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굴림을 굴리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이 소국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니까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중 나가는 사람을 잘 뽑아서 내보내야 했었죠. 이건 국운이 달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소신껏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시라면 시, 또는 군이면 군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봐서, 입이 무겁고 아주 청렴하고 이 마음공부에 정말이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았죠. 뽑아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내보냈는데 사신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새참으로 떡이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가지고 나간 상을 놓고서 떡을 차려 놨는데 그쪽 사신이 거기서부터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시험해 보고 자기한테 하치않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나라 전체를 그냥 하치않게 보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죠. 거기서 안내자로 나간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러니깐 떡을 냉큼 다섯 개를 집어 먹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떡을 먹다 말고 손가락을 세 개를 척 들면서 아무 말 없이 무언(無言)의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 개를 먹었느냐?" 하는 줄 알고 "난 떡을 다섯 개를 먹었다." 하고 다섯 손가락을 탁 내밀었단 말입니다. 하하하…. 다섯 개를 탁 내미니까 그쪽에서는 '허, 삼강오륜을 그냥 통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선 가슴이 뜨끔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네모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하거든요. 아, 그러니깐 "너는 네모반듯한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또 "동그란 떡을 먹었다." 하고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얼마나 재밌는 얘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딨느냐 하면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정신계의 '참나'가, 뿌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간에 내면에서 뿌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확연히 깨치진 못했어도 거기서 뜻을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떡 먹은 걸로 그냥 돌려서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뜩퍼뜩 생각을 했지. '아, 떡을 반듯한 거 먹었느냐 묻는구나.' 그러고선 "동그란 거 먹었다." 그러고 "셋을 먹었느냐?" 하니까 "다섯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망하게 만들려고 가는 길을 스스로 이 안에서 흥하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뭉쳐 있는 모든 악업 선업 그 자체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피치 못해요. 그 모든 걸 한마음으로 모아서 주장자가 된 것은 자기 몸뚱이를 그냥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떡을 먹는 걸로 생각을 나게 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농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조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야! 안내하는 사람도 이러하니 저 안에서야 어찌 감히 말이나 물어보랴.' 해서 그냥 떨려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슬슬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곤 갔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그냥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삼강오륜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했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혀끝을 척 차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 나라를 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치지 못하겠다." 하더랍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이 마음공부 하시는 양반들! 하하하. 법이 법이라는 이름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항상 평등공(平等空)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하는 평등공!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공(空)! 그래서 평등공에서 나오는 법은, 즉 말하자면 방망이가 오면 철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허술히 듣지 말고 허술히 행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옛날에도 얘기했죠. 두 친구가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걸 듣고 한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나라마다 전체 왕들을 모아 놔도 저렇게 이익하게 말씀은 못하실 거라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받아서 모르는 나라에서 좀 펴 봤으면….'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옛날에는 수레가 백 대씩 이렇게 장으로 나가는 행렬들이 있었죠. 그런데 술을 먹고 쓰러져 가지곤 수레에 치여서 죽고, 한 사람은 친구가 죽으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물건을 짊어지고선 배에 실어 가지고 어떤 섬나라로 갔더랍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오네요. 하하하.

그때 그 나라의 인군이 돌아가셔서 새 인군을 뽑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말이 뽑아요, 말! 그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옷을 해서 척 걸치고선 나와서 뽑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그 사람이 짐들은 어디다가 맡겨 놓고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더니, 양쪽으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찼는데 슬슬 그 말이 오더랍니다. 그 말이 어떻게 영명한지 떡 오더니만 고개를 돌려서 그 보따리 낀 사람을 척 보더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다가, 다시 고개가 이쪽으로 들어오더니 사람 틈에 낀 그 사람을 엉덩이로 자꾸 밀어서 그 사람이 물러나게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자꾸 피하니깐 자꾸 쫓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말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정승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이 '아, 여기 인군 될 분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태워도 팽개치고 저 사람을 태워도 또 팽개치더니 그 보따리 낀 사람을 태우니깐 그냥 턱 타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말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군이 되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 여기도 부처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듣게 해야겠구나.' 해서, 부처님을 모셔다 설법을 듣게 해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빼먹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하하하….

그랬듯이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법사 스님이 물러서지 않는 정진력과 실천력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살림을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상대도 있고, 집안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이요, 셋째도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처음에 왈딱 일어날 때에 탁 놔야지 그게 벌어져 가지고 얽히고설킨 이후에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라고 법사 스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남이 언짢아할지 좋아할지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닥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가지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찰나찰나 닥쳐오는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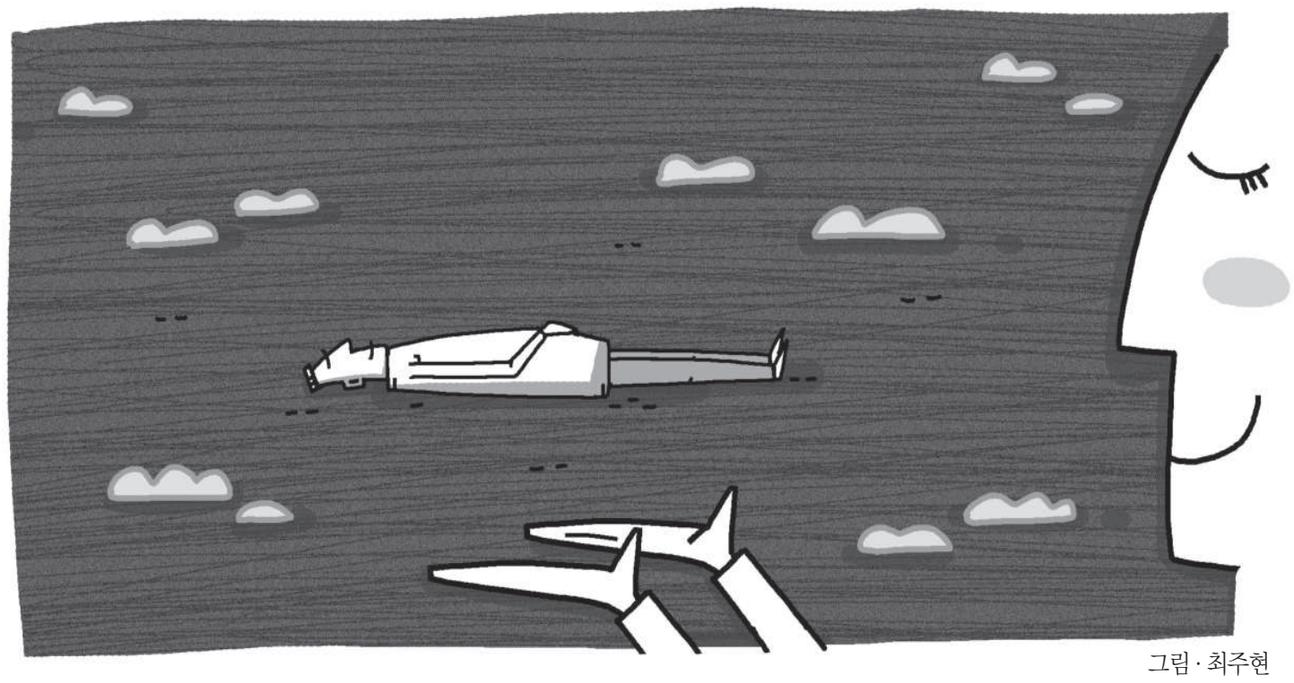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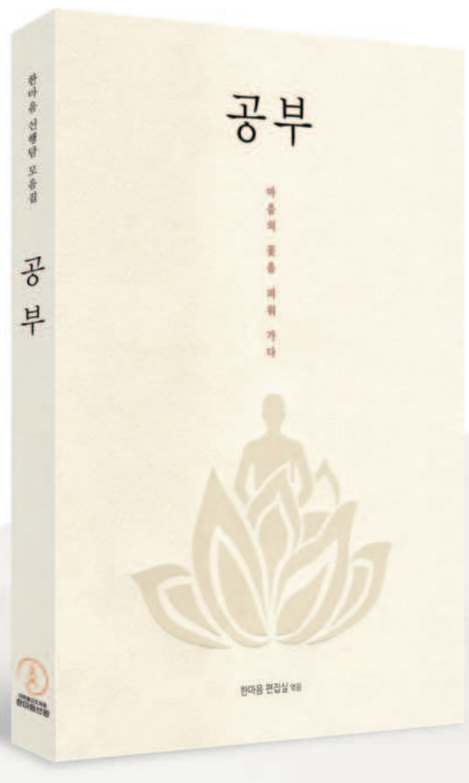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대행 스님

그대로 충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라

여러분과 오늘, 새해에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굴림을 굴리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이 소국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니까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중 나가는 사람을 잘 뽑아서 내보내야 했었죠. 이건 국운이 달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소신껏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시라면 시, 또는 군이면 군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 봐서, 입이 무겁고 아주 청렴하고 이 마음공부에 정말이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았죠. 뽑아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내보냈는데 사신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새참으로 떡이 나갔더랍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가지고 나간 상을 놓고서 떡을 차려 놨는데 그쪽 사신이 거기서부터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시험해 보고 자기한테 하치않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나라 전체를 그냥 하치않게 보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죠. 거기서 안내자로 나간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러니깐 떡을 냉큼 다섯 개를 집어 먹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떡을 먹다 말고 손가락을 세 개를 척 들면서 아무 말 없이 무언(無言)의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 개를 먹었느냐?" 하는 줄 알고 "난 떡을 다섯 개를 먹었다." 하고 다섯 손가락을 탁 내밀었단 말입니다. 하하하…. 다섯 개를 탁 내미니까 그쪽에서는 '허, 삼강오륜을 그냥 통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선 가슴이 뜨끔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네모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하거든요. 아, 그러니깐 "너는 네모반듯한 떡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또 "동그란 떡을 먹었다." 하고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려 보이시며) 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얼마나 재밌는 얘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딨느냐 하면 여러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정신계의 '참나'가, 뿌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간에 내면에서 뿌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확연히 깨치진 못했어도 거기서 뜻을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떡 먹은 걸로 그냥 돌려서 일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뜩퍼뜩 생각을 했지. '아, 떡을 반듯한 거 먹었느냐 묻는구나.' 그러고선 "동그란 거 먹었다." 그러고 "셋을 먹었느냐?" 하니까 "다섯 개를 먹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 망하게 만들려고 가는 길을 스스로 이 안에서 흥하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스려서 완벽하게 주장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체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이 몸속에 뭉쳐 있는 모든 악업 선업 그 자체들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피치 못해요. 그 모든 걸 한마음으로 모아서 주장자가 된 것은 자기 몸뚱이를 그냥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떡을 먹는 걸로 생각을 나게 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농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조선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야! 안내하는 사람도 이러하니 저 안에서야 어찌 감히 말이나 물어보랴.' 해서 그냥 떨려서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슬슬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곤 갔답니다.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조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그냥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삼강오륜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했더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혀끝을 척 차면서 하는 소리가 "야! 그 나라를 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치지 못하겠다." 하더랍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이 마음공부 하시는 양반들! 하하하. 법이 법이라는 이름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항상 평등공(平等空)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하는 평등공!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공(空)! 그래서 평등공에서 나오는 법은, 즉 말하자면 방망이가 오면 철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잘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허술히 듣지 말고 허술히 행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옛날에도 얘기했죠. 두 친구가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걸 듣고 한 사람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나라마다 전체 왕들을 모아 놔도 저렇게 이익하게 말씀은 못하실 거라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받아서 모르는 나라에서 좀 펴 봤으면….' 했더랍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옛날에는 수레가 백 대씩 이렇게 장으로 나가는 행렬들이 있었죠. 그런데 술을 먹고 쓰러져 가지곤 수레에 치여서 죽고, 한 사람은 친구가 죽으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물건을 짊어지고선 배에 실어 가지고 어떤 섬나라로 갔더랍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오네요. 하하하.

그때 그 나라의 인군이 돌아가셔서 새 인군을 뽑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말이 뽑아요, 말! 그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옷을 해서 척 걸치고선 나와서 뽑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그 사람이 짐들은 어디다가 맡겨 놓고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더니, 양쪽으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찼는데 슬슬 그 말이 오더랍니다. 그 말이 어떻게 영명한지 떡 오더니만 고개를 돌려서 그 보따리 낀 사람을 척 보더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다가, 다시 고개가 이쪽으로 들어오더니 사람 틈에 낀 그 사람을 엉덩이로 자꾸 밀어서 그 사람이 물러나게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자꾸 피하니깐 자꾸 쫓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말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정승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이 '아, 여기 인군 될 분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을 태워도 팽개치고 저 사람을 태워도 또 팽개치더니 그 보따리 낀 사람을 태우니깐 그냥 턱 타고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말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군이 되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 여기도 부처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듣게 해야겠구나.' 해서, 부처님을 모셔다 설법을 듣게 해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빼먹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하하하….

그랬듯이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법사 스님이 물러서지 않는 정진력과 실천력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살림을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상대도 있고, 집안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이요, 셋째도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처음에 왈딱 일어날 때에 탁 놔야지 그게 벌어져 가지고 얽히고설킨 이후에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라고 법사 스님이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남이 언짢아할지 좋아할지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닥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가지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찰나찰나 닥쳐오는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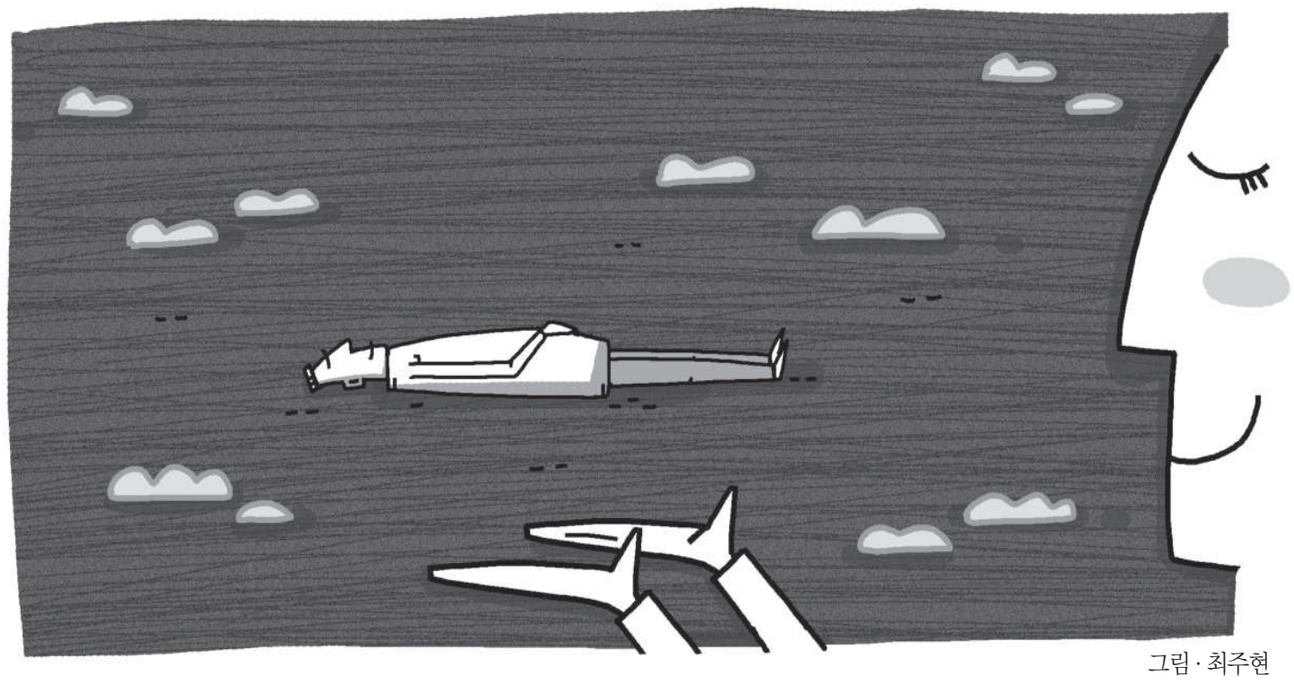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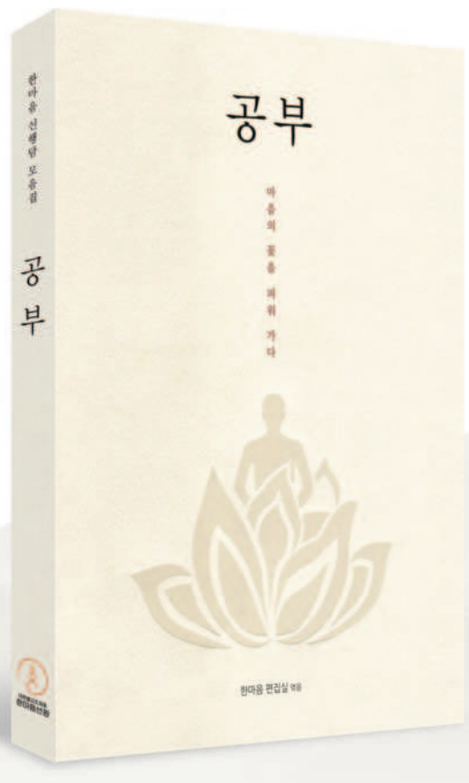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선 안 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지, 또 어떤 때는 즐거움도 닥쳐와요. 뭐, 어려움만 닥쳐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많이 닥치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놓으라고 했죠.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되돌려서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쓰라고 하는 말을 수차에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생활하는 물질세계가 50%라고 한다면 정신세계가 또 50%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정맥 동맥이 같이 둘 아니게 돌아가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같이 돌아가느니만큼 정신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신계로 돌아서 현실계로 나오는 거니깐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 나올 거라면 먼저 거기다 넣어서 돌아 나오게 만들어야죠. 용광로에다 헌쇠를 넣으니까 재생돼서 새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탄도 부서진 거 갖다 넣으면 재생돼서 새로이 나옵니다. 방편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안됐지만요, 하치 못한 방편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나 작으나 방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을 숭배만 할 줄 알았지, 그리고 숭배를 합네 하면서 이만큼 고(苦)덩어리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는 그거를 감해 달라고, 우리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뭐, 일가친척까지도 모두 잘되게 해 달라고 그냥 잡다하게 빌 뿐인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모든 에너지가 흡수돼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무는 태양열과 공기, 그 어떠한 에너지도 다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야 물바퀴가 저절로 돌아가듯 샘물이 저절로 돌아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푸르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만약에 딴 나무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도와줄 줄 알고 딴 형상한테 빌고 딴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빈다면 거기서 에너지를 그리로 보내 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나무의 자기 뿌리만이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 공덕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들어 있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요 향나무 이파리 같은 거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네 내면, 그 육체 안에 생명들이 각계각층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억 광년 전부터 진화돼서 바뀌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왔다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내 몸뚱이가 증명서라고요. 그러니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를 배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커서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세계예요. 중간에 서서 배를 타고 가는 셈이란 얘깁니다. 이 몸뚱이를 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생들이 그 속에 잔뜩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노를 젓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울근불근해서 배가 뒤집히면 너와 내가 다 죽어요, 선장이고 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선장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다스리면서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 한 구멍에서만이 대치할 수 있다. 한 구멍에서 병을 내보냈으니까 한 구멍에서만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의 악업 선업이 영혼과 부착이 돼 가지고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딴 데서 오는 거라곤 없어요. 안의 악업 선업에서 좋고 기쁘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데선 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몸뚱이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돼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물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다 탁 트인단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니 거기에서, 일을 할래도 수없이 안되는 수도 있고 잘되는 수도 있고, 해 보려고 하면 망하고, 허허허…, 좀 살 만하고 조금 모였다 하면 다 나가고 하는 문제들이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건건이 생기곤 하죠. 그것이 바로 선악업에서 나오는 까닭이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거마다 불바퀴에다 놓으라고 하죠. 오는 대로 그냥 거기 집어넣어라. 그러면 타 버린다. 닥치는 대로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지, 그냥 '아이고, 버리자.' 그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게 했으니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네가 모든 걸 막아야 하지 않아.' 하고 또 놓고 '이것은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놓고, '너만이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그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못됐다거나, 잡혀갔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논다거나, 건건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돼서 애로가 많은 집들도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식구들이 전부 애를 쓰는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대치를 해야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가 시급한 게 지금 그거지 딴 게 있습니까? 내 몸과 가족들과,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바로 내 성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돼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세상 물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다 탁 트인단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니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 있으면서 정신계를 받아들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들 있습니다, 정신계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의학계에서도 볼 때에,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앞줄에 앉아 있는 의사를 보시며) 안 그렇습니까, 의사 나으리? 그, 약을 파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약사? 응, 난 이름도 몰라요. 약사나 의사도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 다르고 한 사람이 달라요. 안 한 사람은 그냥 건건이 걸려요. 우리 절에도 산부인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도 걸림이 없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 애로가 많았던 게 다 없어졌대요. 무슨 까닭일까요, 그게? 대치가 되니까 그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저 아주 몹쓸 감기가 들어도, 폐가 나빠질 감기라도 소화제를 먹고 그냥 낫는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약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바로 직속으로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낫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가 묘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법사 스님을 다달이 이렇게 모시느냐 하면, 나는 위에서부터 내리 그냥 그 뜻을 배워 나왔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차차 올라가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아예 그냥, 그냥 돼 버려서요. 그러니 이 현 시점에서 사회의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예의나 그런 것들을, 내가 혹시나 모르면 대치해 주십사 했던 거죠. 그래서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법사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내가 말하는 게 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것이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신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맥과 동맥이 둘을 놓고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정신계와 물질계는 동일하게 같이 지금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고 있거든요. 나로서는 부족하든지 부족지 않든지 간에 온 힘을 다해서 자세히 하려고 해도 자세히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귀가 떠져야 내가 자세히 안 해도, 컵만 들어도 벌써 '저건 무슨 소리야.' 하고 알게끔 돼 있습니다. 소가 음메 해도 벌써 무슨 소린지 알게끔 돼 있고요. 개가 멍멍 짖어도 무슨 소린지 알게끔 돼 있어요. 꽃이 바들바들 떨어도요, 꽃도 살아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아침에 해가 떴을 때는 꽃이 아주 기지개를 착 펴고요. 저녁나절이 되면 하나하나 오므라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산에 다니다 보면요, 무엇이든 딱 닿았다 하면 탁 말아 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든 뭐든 말아 들일 뿐만 아니라, 벌레가 오면 모두 말아 들여서 그냥 삼키고 말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으니 모두 스승이지 어디 업신여겨 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돌 하나가 굴러가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그 돌이 참 똥 덩어리처럼 굴러가네.' 하고 웃기도 합니다. 또는 물이 흘러갈 때에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것이 다 말없이 가르치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전부가. 바다를 내려다보십시오. 바다가 내가 이럭한단 말이 없어도 수많은 물줄기가 다 그리로 흘러가고, 비가 쏟아지면 빗물, 똥물이면 똥물, 악취 나는 물, 구정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도, 오만 게 다 들어가도 여여하게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였다 하면 그 흔적은 없어지죠. 그러니 모두가 스승이 아니라고 볼 수 없겠죠.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이 계셔서만 불법이 아니고, 머리를 깎고 목탁을 쳐서만 불교가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통신과 통신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고, 이렇게 일체 만물이 다 서로 끝없이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는 줄 아십니까? 나오면 깎아 버리고 나오면 깎아 버리는 원인이 어딨을까? "살아나가는 모든 게 찰나찰나 바뀌고 화해서 나투니, 지나간 것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한 오늘이다. 그런데 오늘도 공했으니 세월과 네월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대로 충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아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무명초를 다 깎아 버리면 또 나고, 그게 정상이죠. 깎아 버리고 아주 안 난다면 정상이 아니죠. 나고 또 깎고, 나고 또 깎고, 우리가 한 발짝 딛고 또 딛고, 한 발짝 딛고 또 딛고, 밥 먹고 또 먹고, 똥 누고 또 누고 이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불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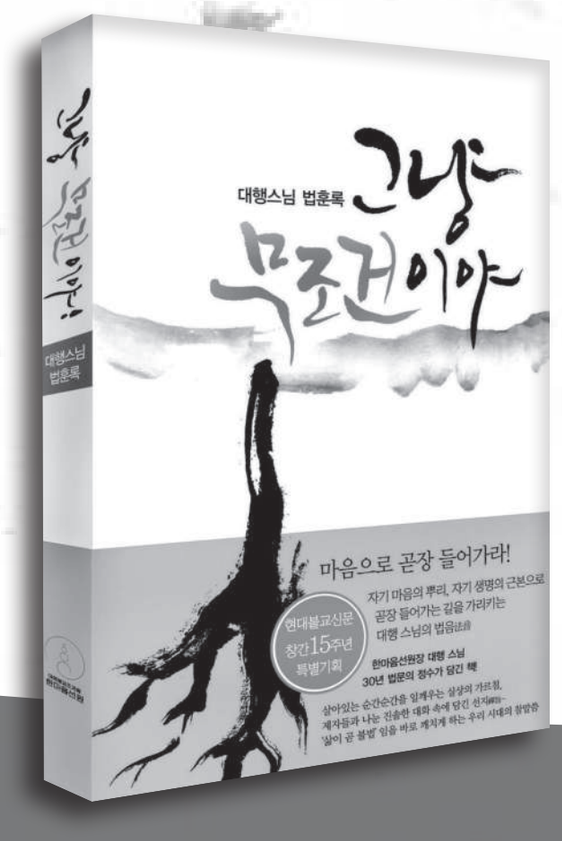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사가 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게 다 그냥 불교죠. 그런데 불교 안에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따로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가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따로따로 나누지만 불교 안에 종교가 전부 있는 거다. 그 불교 안에서 걸상 하나 이쪽으로 놓고 내 걸상, 저쪽으로 하나 놓고 내 걸상 하는 것이니 그것은 너무 옹졸한 짓이야. 지구 안에 우리 생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요리 피하면 뭘 하고 저리 피하면 뭘 하냐?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 묘에는 불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오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 불의 뜻을 아느냐? 세계 전체, 이 우주 전체가 모두 불바퀴가 헤아릴 수 없이 있다. 그게 불이 둘이냐? 생명이 또 둘이냐?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떡거리고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들어 주니까 재미있데요. 그 사람네들은 다 가톨릭교 기독교거든요. 하하하…, 어느 스님이 들어갔다 내쫓겼다면서 신도들이 내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초청을 해 놓고 트릿하면 그냥 내쫓는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강당에 꽉 찼는데 들어가서 (주먹으로 법상을 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꽝꽝 치고 얘기했죠. 허허허…. 그랬더니 팥 넣고 찰밥을 해서 이런 들통으로 하나를 하고요, 찌개를 그냥 한 솥을 해서 들고 노비까지 가지고 왔어요. 쫓겨나지 않고요. 허허허…. 그래서 편도 가르지 않았고, 또 진리가 편이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해 주시는 그 마음도 역시 동일하고요. 뭐,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그런 것도 없이 아주 평화스럽고 좋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무분별 1인 방송에 대처하려면

이화행 교수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1인 인터넷방송 성장 '폭발적'
모바일 광고 매출 PC를 넘어서
유명 유튜버들 엄청난 인기몰이

이용자가 크리에이터 활동 가능
저비용 제작 · 쉬운 소통도 '장점'
현재 제작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 콘텐츠 난립

문제 방송, 플랫폼도 책임 물어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들을 통해
스스로 유해성 판별 능력 배양을

1인 인터넷방송의 확산과 성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디지털미디어 분석업체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방송의 시청자 수가 2,800만 명을 넘었으며, 매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55% 이상을 동영상 재생이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2017년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조사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광고매출액이 PC 기반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로 지칭되는 인기 유튜버들의 인기몰이도 엄청나다. 2018년 봄 유튜브 크리에이터 순위 1위를 차지한 제이플라의 동영상 'Shape of You'는 조회수 1억 5천에 달하여, 단일 영상 예상 수익만도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희망직 10위권 안에 인터넷방송진행자(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유튜버가 희망직종 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수년 사이 인터넷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소위 유비쿼터스 환경에 힘입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도 1인 인터넷방송의 공급과 수요의 증가에 원동력이 되었다.

인터넷은 방송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전 지구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와 즉각적이고 손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용자가 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기능하는 소위 생산소비자(Prosumer)로 탈바꿈하면서, 방송인이 아니어도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를 넘어 틱톡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산재하다보니 1인 인터넷방송 운영자간의 과열 경쟁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선정적이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콘텐츠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회 수 올리기에 혈안이 된 유튜버나 BJ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채널을 통해 여과 없이 방송되어 1인 인터넷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인터넷 방송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하다. 문제가 된 1인 인터넷방송의 규제 대상, 즉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BJ 개인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방송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물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책무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자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즉 미디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콘텐츠의 유해성 판별, 선별적 노출 능력 등 미디어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개인의 역량을 말한다. 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통해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인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社 說

만해 선양사업, 불교계도 관심을

만해 한용운 스님은 수많은 독립유공자 중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기미독립선언서에 동참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으로서 '공약 3장'을 추가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족을 생각한 독립정신을 꺾지 않았다. 불교계에선 월간지 〈유심〉과 〈조선불교유신론〉 등을 펴내며 불교의 개혁을 주창한 개혁인사로, 문학계에선 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저항문학에 앞장선 문학인으로 평가된다.

이런 업적을 기리고자 여러 지자체에서 만해 스님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이자 만해 스님 탄생 140주년을 맞아서다. 올해 전개되는 선양사업들은 단순히 '기념'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화와 뮤지컬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만해라는 인물을 알리고, 관련 유적지 개발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만해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님의 침묵'은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만해 스님 유택인 심우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제는 차질 없이 선양사업이 전개되는 것만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초 발표된 지자체들의 계획은 올해 3월 1일에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6.13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만해 선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한국 그리고 불교 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만해 스님의 정신이 선양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롯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생애주기 신행' 활성화 원년 삼자

조계종 포교원이 2016년 신행혁신 운동을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신행정보센터를 각 지역에 세우고, 다양한 의례집을 보급하는가 하면 신행상담을 비롯해 기존 진행된 신행일지 작성 등도 보다 활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관혼상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애주기별 신행의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생애주기별 신행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다. 유아기부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등 각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불교의례, 불교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성년의날을 맞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성년의날 예배 등을 치르고 기독교식 축하행사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교계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다.

이제 생애주기별 신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의례 보급부터 맞춤형 활동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 어르신 법회를 넘어 사찰 차원의 문화행사,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활동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처님은 불교의 생명은 대중 속에 있음을 말하셨다. 대중의 삶과 괴리된 고상한 교리나 사상은 박물관의 문화재처럼 박제되기 십상이다. 이제 한국불교는 생활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한 발씩 더 들어와야 한다. 그 시작은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진행할 생애주기별 신행활성화 사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종책 집행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의례집을 보급하고 중앙 주도의 행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이 생활화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도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아이들이 걱정하는 지구

"엄마,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에 인간만 남는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전광판을 보고 이런 저런 환경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아들이 내게 물었다. "그러게. 그런데 인간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가 있어서 그 덕분에 살 수 있거든. 공생하고 있어서 다른 생명체가 사라지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게 될 거야."

평소 생명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다 어릴 적부터 엄마로부터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생명관을 자주 들어왔던지라 아들은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초등학생인 아들조차 지구가 걱정이다. 2019년의 우리 아들처럼, 1992년에도 12살의 한 소녀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서번 컬리스-스즈끼. 서번은 제1차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은 이렇다.

"저는 어른들의 행동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걸 직접 말하기 위해 가진 돈을 모아 8000km를 날아왔어요. 저는 어린이일 뿐이고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요.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릅니다. 오염된 하천으로 연어들을 돌아오게 끔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멸종한 동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법도 모릅니다. 이미 사막으로 변해 버린 곳을 예전의 숲으로 되돌려 놓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복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파괴를 중단하세요!"

어쩌다 숲은 사막이 되고, 동물들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나는 분명히 알지를 못한다. 게다가 나는 동물을 죽인 적도 없고 나무를 벤 적도 없으니, 그 누군가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은 따로 있고 나는 오히려 지구의 위기를 걱정하는 쪽이라고 위안하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린 서번이 외친 "파괴를 중단해 주세요"라는 한마디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

서번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 연설 이후 지금까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 책을 내고 환경 관련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수많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지구를 위해 움직여 온 그녀가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다. '개인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부터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지구를 위기에 처하도록 행동해 온 당사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동안 일어나는 파괴의 행동을 인지하고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

일회용 종이컵이 난무하는 시대에 휴대용 개인 컵을 들고 다니는 좀은 별나고 번거로운 행동양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별나게 보여도 언젠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지구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가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재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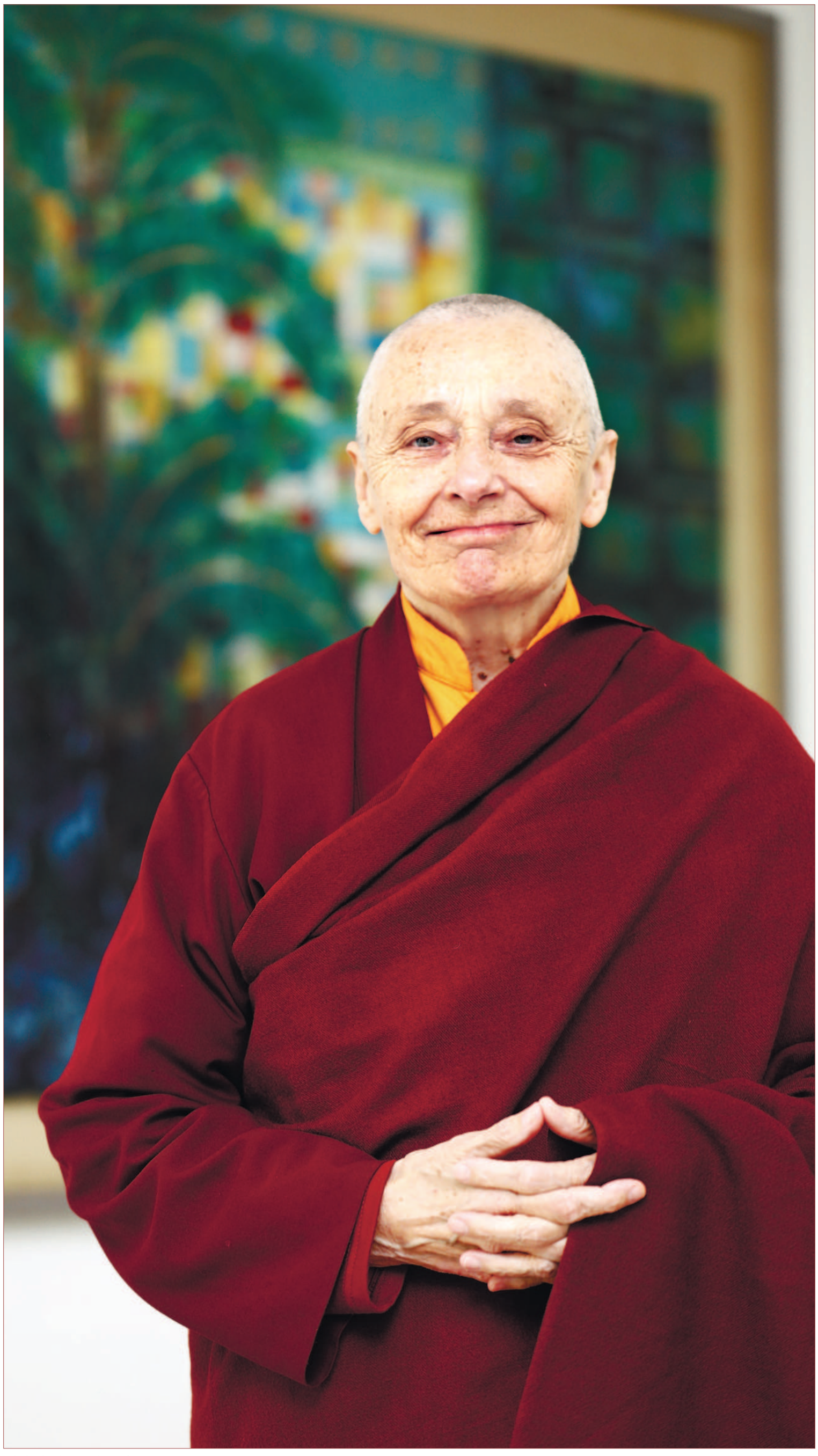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성 편견 없애면 불교 진면목 드러난다



텐진 빠모(1943~) 스님은… 영국출신으로 20세에 인도에 가서 티베트 불교의 계를 받은 뒤 12년 동안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수행했다. 하산한 후에는 불교 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북인도 비구니 사원을 세워 비구니 양성에 나섰다. 스님은 2005년 달라이라마로부터 '6인의 서양 비구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비구니 승단이 없는 나라에서 비구니 전통을 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여성불자 네트워크인 사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스님은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란 책을 통해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

특별인터뷰

텐진 빠모 스님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 대부분은 남성이다. 불교는 비구니라는 여성 승려를 인정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차별은 존재한다.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비구니인 텐진 빠모 스님은 그동안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 여성불교계를 이끌고 있다. 불교 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스님은 최근 세첸코리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마음과 친구하기' 명상 법회에 참석해 불자들에게 수행 요체를 전했다. 이 기회를 빌어 텐진 빠모 스님과 대화를 통해 몇가지 궁금한 점을 들어볼 수 있었다.

정리=노덕현 · 김지원 기자

Q 텐진 빠모 스님께서는 청소년기 불교서적을 읽으며 불교와의 인연을 쌓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인도에서 우연히 '캄트롤 린포체' 이름을 보고 귀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인도에서 출가수행자로의 삶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어릴 적부터 난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진 채 살았죠. 18세에 처음으로 불교 경전을 읽고 나서, 바로 부처님께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명쾌하게 설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60년대인 당시는 히피시대 전이었어요. 영국에서 글로써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저를 이끌어 줄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20세 때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21세가 된 생일에 스승이신 캄트롤 린포체를 만났고, 3주 뒤 스님이 됐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저는 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Q 텐진 빠모 스님께서는 1970년대 히말라야에서 3시간만 잠을 자며 12년간 수행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년간 한국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무문관'처럼 사람을 접하지 않는 독거수행을 하셨는데요. 독거수행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A 오랫동안 집중수행 안거 한 결과, 지복이나 명료함 같은 명상체험으로 안거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번뇌가 감소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역경을 잘 다루기 위해 변했는지 즉,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가가 바로 안거를 잘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는 위대한 스승이신 아띠샤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거수행은 우리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대상 없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거수행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속에 살면서 마음의 성품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안거수행만 하면 자기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수행자라고 착각할 수 있죠.

Q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도 다양한 강연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정진,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듣고 싶습니다.

A 일상생활을 수행으로 삼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수행방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는 것,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여는 수행입니다. 이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듯,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점에서 타인과 공감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보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현명하게 상황을 다룬다는 것은 내면의 좋은 성품을 기르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명상 수행이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수행도 괜찮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수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침 일찍 하는 것인데, 시간은 자율적으로 5분, 10분, 20분, 1시간 등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지내는 것입니다.

서양인 최초 티베트 출가
20세 인도서 캄트롤 린포체 만나 발심, 히말라야 수행
12년 수행 · 하산 후 여성운동
불교 내 성차별 폐지 나서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면 일상에서 마음의 성품을 기를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그 전의 말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친절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알아차림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알아차림을 잊어버린다는 점이죠. 알아차림의 의미는 우리가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걷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앎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순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은 알아차림을 호흡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린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양치질을 하는 등 생각이 필요 없는 일상의 일과들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 가기까지는
B5 문화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교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
B6 학술 지광국사탑, '한글묵서' 첫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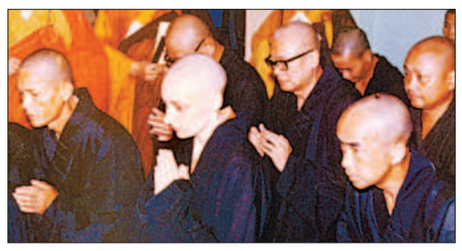
“세계 여성 계몽, 한국불교 앞장 서길”



1980년대 히말라야 토굴서 수행하는 스님 모습.
사진출처=tenzinpalmo.com



2017년 사카디타 홍콩대회서 한국 비구니 스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텐진 빠모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 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렉소 소모 스님. 사진제공=샤카디타코리아 사무국



1973년 홍콩서 비구니계를 받는 텐진 빠모 스님.
사진출처=tenzinpalmo.com



2017년 샤카디타대회서 한국불자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제공=샤카디타코리아 사무국

‘텐진 빠모 스님’ B1면에서 계속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 순간으로 들어오고, 이 순간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Q 불교는 어떻게 보면 여성수행자에 대한 위상이 높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성차별이 있는 상황입니다. 스님께서는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 여성불자들도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불자들이 받는 차별, 혹은 사회적 편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불자들이 이런 편견을 없애 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세계 여성불자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A 여성이 정치적인 선거에 참여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성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보편화된 것은 최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음으로써 생긴 문제는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특히 글을, 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세계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책을 쓸 수 없으니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책도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는 사회의 여성들은 조용히 살았어야만 했죠. 인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인도 나란다 대학의 경우도 1만여 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의 학자, 통역가들도 여기서 글을 썼는데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없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의 중요한 주석들, 가령 〈이보리행론〉같은 주석들은 항상 비구 스님들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도, 책에 보면 여성 몸이 열등하고 더럽고 오염됐고 부끄러움의 대상이라고 나오니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여성이 제일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관점 등 이런 견해밖에 주어진 게 없어서 굉장히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약화됐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비구니 스님들이 교육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티베트, 네팔, 부탄에서는 스님들이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비구니 사원에서, 가령 3년간 무문관 수행도 하고, 교학도 공부하고 논쟁에도 참여합니다. 인도나 네팔에서는 비구니가 아닌 여성 스님이라고 칭하는데, 20년 간 교학 체계를 밟으면서 ‘게쌰(선지식)’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간 공부해야 받을 수 있는 계쌰 학위는 박사 학위와 비슷한데, 지금까지는 여성 스님 가운데 계쌰 학위를 딴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독일출신 비구니 스님이 학위를 땄습니다.

지금은 게쌰마 등 높은 직위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교학 공부와 수행의 균형이 바로 비구니 스님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게 보는 눈으로부터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모든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성 수행자들이 스승이 되고, 이미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세상에 나와 스승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라고 하면 기복으로 대변되는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많은 자각 있는 여성불자들이 이끌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A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대상이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무 · 하나님 · 천사 · 관세음보살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불자 내면의 힘 발휘
한국불교는 여성불자 활동 강해
세계불교계 성차별 폐지 기여를
남녀 갈등 · 인간 기준 보면 풀려
일상 생활 속 마음챙김 강조

기도하는 이유는 내면의 깊은 신성한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주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사실 우리 안에 있고,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자들이 사찰에 찾아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깨달음에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라며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죠.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내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범위를 넓혀서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도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벗과 원수를 가리지 않고 지인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별 없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자든, 남자든, 어떤 성별이든, 불자든 아니든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을 잘 활용해서 마음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라, 집, 몸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집을 꾸미고 머무는 방도 좋게 만들고, 장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보기 좋게 만듭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몸도 많이 보기 좋게 보살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한 다른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게 장식하고, 여유롭게 공간을 넓히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마음을 머물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신경을 쓰나요?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고 하셨어요. 길들인 마음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길들여야 좋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전쟁, 갈등, 빈부격차 등 모든 안 좋은 일들은 길들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 공기, 물, 동식물, 지상, 인간들에 해를 주는 사람들은 길들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권력자들 역시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불교를 떠나서 우리는 좋은 인간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먼저 길들여야 합니다.

Q 최근 한국사회는 남녀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서로 간 비난과 비하 등을 하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성별을 넘어선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양성에서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독자들에게 좋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온 세상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과 경쟁심, 야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지구상 생명을 해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뇌, 욕심, 증오, 질투, 오만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정신없는 사람들(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무지’ 입니다. 본성을 모르고, 본성 아닌 것에 집착하고 ‘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인슈타인이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많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듯,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그렇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실상과 고를 알아보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성제를 통해 해탈로 가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겪는 문제들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왜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부터 이미 넘어선 존재인 우리가 인지해야한다면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깊은 삼매에 들지 못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더 깨어날 수,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죠. 그냥 인간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입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륜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태안사·고엔카로 이어진 수행 여정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② 빠옥 총림 가기까지…


자이푸르 고엔까 선원의 전경. 필자는 박사 논문 제출 후 이곳에서 집중 수행을 했다. 이곳을 건립한 고엔까는 미얀마로 간 인도불교 수행법을 다시 인도로 복원시켰다.

청화 스님에게 직접 지도받아
당시 선정 체험, 지금도 도움

고엔까 건립 담마아란야 선원서
집중 수행… 일일 평균 11시간
미얀마로 간 인도 불교 수행을
인도에 복원시킨 현장 '목도'


태안사 시민선방 '정중당'의 전경. 이곳에서 대학시절 청화 스님에게 수행 지도를 받았다.

먼저 미얀마 수행처에 앞서 선정에 집중했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필자의 불교 인연은 선정 체험에서였다. 그때까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경험이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 줄곧 선정에 관심을 뒀다. 초기경전에서 사선과 사념처 등의 선정 사상은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초기불교 선정론은 주목받지 못했다. 불교대학에서조차 이를 설명해 주는 과목이나 교수는 없었다. 당시는 중국 선종 분위기에 압도되어 초기불교경전의 선은 단지 소승선으로 치부되어 주목받지 못했다. 대학 밖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홀로 독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에 들어 청화 스님(1923~2003)의 〈정통선의 향훈〉을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사선 등 불교의 근본 선정 개념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간화선 위주의 도서와는 달랐다. 경론에 나타나는 선정 사상의 기본 개념을 스님의 법어집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다. 마침 스님이 주석하는 태안사에는 시민선방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여름 방학과 함께 시민선방 '정중당(淨衆堂)'에 입방하였다. 주지 스님께 편지를 드리고 기말시험을 마치고 바로 내려갔다. 광주 도착 후 곡성까지, 다시 군내 버스를 타고 펼쳐지는 섬진강 자락은 아름다웠다. 다시 걸어서 태안사까지는 단풍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계곡의 청량한 물소리는 쉬지 않았다. 오후 늦게 도착하니 방사 소임의 스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방을 정해주었다.

청화 스님은 일반인도 선정 공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중에 시민선방을 건립하였다. 많은 재가자들이 시민선방을 찾았고 나 또한 이곳에서 집중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었고 스님의 토굴에 찾아가 법을 묻기도 하였다. 방학 2달 동안 처음으로 선방 규칙에 따라 집중적인 좌선을 할 수 있었다. 새벽 예불만을 간단히 마치고 선방 2층에 오르면 50분 좌선에 10분 경행과 휴식이 반복되었다. 다시 아침식사 후 점심식사까지, 그리고 저녁식사 이후 저녁 9시까지 대략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의 공부였다.

당시 실제 앉아보는 경험을 통해 초기경전에 나타나는 선정 사상과 체계를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문제 삼아 오는 사념처의 염(念, sati)과 지관(止觀)에 대한 논의도 이때의 경험이 바탕 된 것이다. 나날이 이치가 밝아져와 신심과 환희심이 절로 일었다. 이전에 체험해 볼 수 없었던 깊은 수준의 안정과 집중 그리고 생생한 의식상태가 유지되었다. 현재까지 불교공부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특히 초기경전의 사념처 위빠사나와 사마타 광명관(光明觀)은 현재까지 나를 지속시키는 불교행법이다. 특히 초기경전의 광명관은 청화 스님의 염불선과 통한다. 청화 스님은 당시 한국불교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 참선 공부법의 일반은 처음부터 느낌과 상상 그리고 기억을 배제하고 단절해야하는 것으로 강조되었는데 스님은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느낌과 상상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사마타 위빠사나 관법을 원통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법하였다.

사실 초기불교에서 대승에 이르기까지 느낌과 상상 그리고 기억은 처음부터 금지하고 지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정 과정에 있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님은 경론에 나타나는 관법과 함께 수행 위차(位次)를 비교적으로 제시하여 안목을 넓게 해주었다. 위차는 점차차제의 수행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수행론은 선정 이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의 집중 과정은 인도에서다. 1998년 박사논문을 제출한 후 고엔까(S.N Goenka, 1924~2013)의 담마 아란야(Dhamma Aranya)라는 위빠사나 선원에서였다.

라자스탄(Rajasthan)주, 자이푸르(Jaipur) 산을 배경으로 건립된 선방의 외관은 미얀마 황금탑 양식이다. 이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원래 파고다는 불사리탑으로서 사리를 봉안하고 내부를 꽉 채운다. 이에 반해 고엔까는 파고다 내부를 채우지 않고 대신 대중 선방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불사리탑 안에서 위빠사나 수행은 부처님의 법신사리를 구현해 내는 일로 만든 것이다. 선원의 도량에는 산에서 내려온 공작새가 여기저기 한가로이 거닐거나 아름다운 깃털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빨간 부겐베리아 꽃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자귀나무 등이 어우러진 도량의 군데군데에 개인 처소(kuti)가 마련되어 있다. 마치 별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개인 처소는 미얀마의 빠옥 총림과 비슷한데 원래는 초기불교경전에 나온다. 인도 불교 기원의 개인 거주 수행처의 이름이다. 그렇지만 처소 내부는 2인 1실로 중간 통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침대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이를 독일인 요기(yogi)와 함께 사용했다. 인도나 미얀마에서는 요즘에도 선정 수행자를 요기라 부른다.

선원은 오전 4시에 기상해 4시 30분까지 대중 선실로 입실해야 했다. 2시간 동안의 아침 좌선 이후 오전 6시 30분부터 아침식사를 한다. 이후 오전 8시까지 자유 시간을 갖고 다시 대중 선실에서 오전 11시까지 약 3시간 동안의 좌선과 11시에 점심을 든다. 이후 오후 1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오후 5시까지 한 시간 단위로 좌선을 한다. 오후 5시에도 미얀마와 달리 첫 입문하는 요기에는 간단한 종류의 음식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시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좌선과 고엔까의 법문을 오디오와 비디오로 시청하였다. 오후 9시 30분 이후부터 개인 처소에서 취침하여 다음날 새벽 4시에 기상하는 반복적인 일상이었다. 수행 시간은 새벽 2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리고 밤 3시간이면 매일 11시간 정도이다.

고엔까는 인도 출신으로 미얀마에 살면서 재가자인 우 바킨(U Ba Khin)으로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전수받았다. 인도로 돌아와 1976년 세운 수행처를 인도인은 물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찾는 선원으로 발전시켰다.

수행은 10일 단위로 과정이 올라가는데 입방과 함께 오계에서 팔재계의 수지와 묵언을 해야 한다. 경행보다는 좌선을 위주로 한다. 단체 좌선시 같은 공간에서 남녀가 구분되어 앉는다. 대략 100명 정도로 남녀가 반반이었다. 약간 어두운 조명에 남녀가 줄을 맞춰 앉고 맨 앞에는 남녀 지도자 두 명이 약간 높은 자리에 앉아 대중을 바라보며 지도하였다.

일상으로 좌선과 방선을 규칙적으로 행한다. 좌선 중심에서 처음 3일은 출입식념과 이후 6일 동안은 출입식념에 따른 삼매력으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감각을 관찰하도록 한다. 이때 몸을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차례로 관찰하게 하는데 이전부터 해왔던 익숙한 행법이어서 반가웠다. 이는 초기경전에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 맥락에서 설해지는 행법이다.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신념처와 수념처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기본적으로 좌선 위주의 위빠사나인 것이다.

입정과 출정 시 고엔까의 '자비 게송'을 녹음기로 틀어준다. 이 '자비 게송'은 초기경전에 나오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귓가에 남아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감미롭다. '자비 게송'은 늘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로 연결시켜주었다. 언제나 자연스럽게 입정하고 자연스럽게 출정하도록 도와주었다.

고엔까 지도의 수행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편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이를 바탕으로 신념처와 수념처 중심의 위빠사나로 발전시킨다. 특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반복적인 자비관은 매사를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보내는 높은 수용력의 마음 상태로 만든다. 마지막 날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이 확장되기를 염원하는 자비관 회향으로 마친다.

고엔까 수행처에서 첫 입문자는 미얀마와 달리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밤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트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후 불식하는 미얀마 수행처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고엔까 선원은 대중 선방 이후 마지막 과정이 가까워지면 1~2평가량의 1인 공간의 좌선실이 주어진다. 마치 어두운 소굴같이 느껴졌다. 옆방 젊은 인도 요기는 혼자 계속해서 떠들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같은 경우에서 어떤 한국의 한 수행자는 옆방에서 나는 방귀소리와 하품소리를 세어 보았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처음 며칠 동안은 하루 내내 하품소리만 내던 사람이 며칠 지나니 차츰 조용해지고 참선을 하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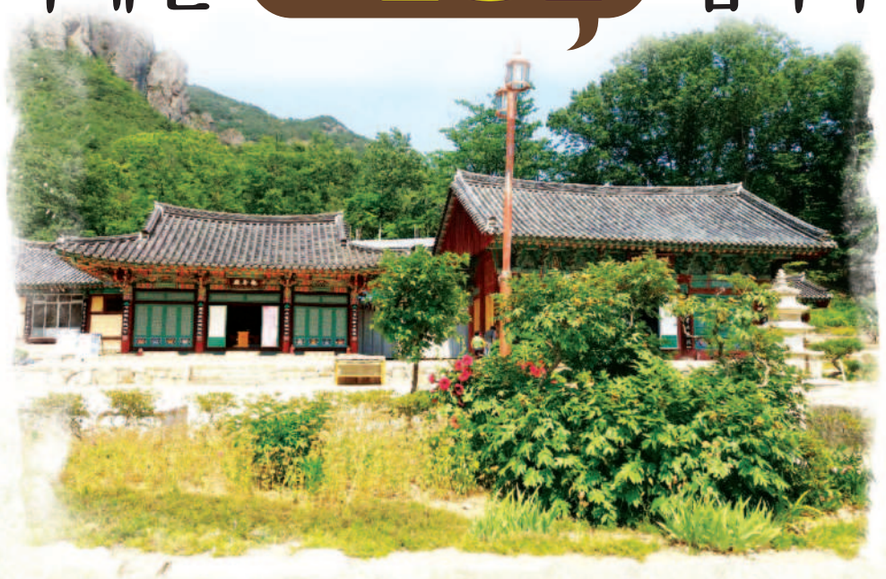
고엔까 수행처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포함한 거주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인도와 미얀마 불교의 전통이다. 초기경전에서 '(설)법은 댓가(돈)로 거래될 수 없다'는 부처님의 정신을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처에 입방한 누구나 무료인데 자율적으로 기부는 가능하다. 입방과 함께 조건부는 아니다. 그래서인지 모두가 순순하다. 또한 유럽과 미주 등지에서 여행경비를 아끼려는 배낭여행자들도 많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고엔까 수행처는 공부했던 선배 수행자들의 보시에 의해 문제없이 유지된다하니 놀랍다. 고엔까의 법력은 대단하다. 45년 이상의 활동으로 감화를 받은 지도자들은 계속 배출되었다. 이제 그의 수행처는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수행되고 있다.

오늘날 고엔까 이름의 선원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행해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스님들은 물론 일반인도 고엔까 위빠사나 덕을 입었다.

고엔까의 불법 포교와 활동 역량은 실로 위대하다. 아마 인도불교사에 있어 스리랑카 출신으로 인도불교 부흥운동을 전개한 아나가리까 다르마빨라(1864~1933)와 함께 인도 출신 고엔까는 불교를 빛낸 인물로 길이 평가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재가의 몸으로 전세계를 무대로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고엔까는 미얀마로 간 인도불교의 수행법을 다시 인도로 복원시켜 세계로 펼친 것이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원 속담말씀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화엄경〉의 진수 고스란히 담아



화엄경청량소
청량징관 지음
반산 스님 역주
담앤북스 펴냄
각권 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청량소〉는 〈화엄경〉을 중국 청량 국사가 해석하고 주석을 단 것으로, 자세한 해설과 방대한 분량으로 화엄경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경전이다.

이번 출간된 반산 스님의 〈화엄경청량소〉는 봉은사 소장 목판 80권 화엄경소초 회본을 원본으로 삼아 직접 원문을 입력하고 소와 초를 번역했으며, 더불어 스님의 견해를 덧붙였다. 스님은 직역(直譯)을 원칙으로 원본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하고, 현재는 경남 양산 원각사 주지인 반산 스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번역 불사에 전념해 7처 9회 39품의 모든 번역을 마쳤으며, 지난해 11월 제 1회 적멸도량 법회와 제 2회 보광명전법회분 출간 이후 금번 제 3회 수미산정법회를 펴냈다.

봉은사 소장 목판본은 원래 조선 숙종 15년(1689)에 임자도서 발견한 성총 스님이 판각 불사를 통해 유통시킨 징광사(澄光寺) 판본이 그 원본이었다. 그러나 1770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영조 50년(1774)에 설파상언(雪坡尙彦)이 판각한 영각사 판본이 유통됐는데, 이 판본도 역시 1950년 전란으로 없어졌지만, 그 경본만은 남아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철종대(1855-1856)에 영기(永奇) 스님이 각인(刻印)한 봉은사판이 현존하게 되었다. 이 봉은사판은 영각사판을 복각(復刻)한 것으로 중간에 45장을 보충했다 한다. 이것이 그동안 강원 대교과(大敎科)의 교재로 사용된 유일한 현존판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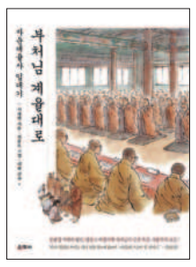
봉은사 소장 목판본에 새겨진
청량국사 〈화엄경수소연의초〉
반산 스님 20여 년 번역불사 후
최근 8 · 9권 잇달아 출간해

한편 〈화엄경청량소〉를 지은 청량국사는 중국의 성당(盛唐) 시절 화엄종을 발전시킨 대종장으로 본래 회계(會稽) 사람으로 성은 하후씨(夏候氏)요 자는 대휴(大休)이며 청량은 덕종이 내린 법호이다.

7세에 출가해 우두혜충(牛頭惠忠, 683-769), 경산도흠(徑山道欽, 714-792)에 의지해 선을 깨닫고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으로부터 화엄의 법을 이었다. 770년경 오대산 대화엄사서 〈화엄경소〉 저술을 결심하고 다시 세간의 학문을 배워 육예(六藝), 도사(圖史)와 구류이학(九流異學)과 축경범자(竺經梵字), 사위오명(四圍五明)에 이르기까지 널리 열람하더니 건중 4년(783) 집필에 들어가기 앞서 서응을 구하니 어느 날 꿈에 부처님 얼굴이 산마루에 비치어 그 광명이 천지에 온화했다. 국사가 손으로 받들어 입으로 삼켰는데 이로부터 한 번 붓을 내림에 막힘없이 4년 만에 〈화엄경소〉 60권을 완성했다. 이어서 후학을 위해 〈수소연의초〉 40권을 지었다고 한다.

통도사로 출가해 고원명정(古園明正)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강원 졸업(1984) 후 천은사, 불국사, 대승사, 극락암 선원 등 6하 안거 성만했고, 중앙승가대학, 조계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을 1기 졸업(1999)했다.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강사 역임,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를 역임했고, 봉선사 조실 월운강백에게 전강(2002),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지냈다.

자운 율사 일대기 소설로 조명



부처님 계율대로
이정범 지음, 김종도 그림
운주사 펴냄
1만 7천원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각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종단단일계단 전계화상, 동국역경원장 등을 맡으며,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자운 율사의 일대기를 조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계율)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한평생 올곧게 수행한 자운당 성우 대율사. 그의 삶과 수행을 오롯이 소설과 그림으로 담아냈다.

자운 스님은 1911년 강원도 평창서 태어나, 1927년 17세에 해인사서 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2년 1월 4일 해인사 홍제암서 열반하니 세수 82세, 법랍 66년이었다. '眞性圓明本自空(진성원명본자공) 光照十方極淸淨(광조시방극청정) 來與淸風逍遙來(내여청풍소요래) 去隨明月自在去(거수명월자재거)' 라는 임종게를 남긴 다음 합장하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명하면서 조용히 입적했다. 해인사 연화대서 조계종 원로장으로 다비식을 거행하였으며, 은행크기의 사리 19과와 녹두크기의 사리 5천여 수가 나왔으나 큰 것만 수습해 이를 해인사, 감로사, 경국사에 나누어 봉안했다.

현대 한국불교 계율의 중흥조

1939년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서 매일 20시간씩 용맹 정진으로 문수기도를 하던 중, 99일째 되는 날에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계척과 '견지금계 불법재흥' 의 감응을 받았다. 그래서 1940년부터 2년여 동안 매일 국립중앙도서관을 오가며 卍속장경에 들어 있는 오부율장과 그 주석서들을 모두 필사하고 연구하였다.

1948년 봉암사 결사에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 이후 1991년 조계종 단일계단 수계법회까지, 출 · 재가 10만 불자에게 수계를 주었으며, 조계종의 계단을 확립했다.

조계종 계단 확립한 장본인
계율과 정토수행 일치 제창
매일 10만 번 '아미타불' 염불

한편 스님은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사미율의〉 〈사미니율의〉 〈범망경〉 등 많은 율서를 우리말로 번역, 지속적으로 펴내고 보급했다.

참선 수행에도 혼신을 다한 선사

1929년 범어사 선원에서의 안거를 시작으로 순천 선암사, 해인사, 표훈사, 울진 불영사, 문경 김룡사, 통도사, 울산 학성선원, 금강산 마하연 등서 수선안거 했다. 특히 불영사서는 3년 동안 장좌불와로 결사했으며, 1938년 도봉산 망월사서 용성선사에게 오도송을 읊고 전법게와 의발을 전해 받았다. 해방 후에는 봉암사 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철, 향곡, 청담 스님 등과 함께 한국불교에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켰다.

평생 염불과 예참을 실천한 염불 수행자

스님은 1957년부터 계율과 정토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계정일치행을 제창하였으며, 〈무량수경〉 〈아미타경〉 〈십육관경〉 〈정토심요〉 〈자비도량참법〉 등 정토와 관련된 다양한 경서를 펴내고 유통시켰다. 그 실천으로 해인사서 염불만일회, 서울 보국사서 대동염불회를 결사해 정토수행을 진작시켰으며,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 즉 항상 참회하는 부끄러운 중이라고 칭하였다. 스님은 열반할 때까지 매일 10만 번의 '아미타불' 고성염불과 〈아미타경〉 48편 독송, 미타예경 1,080배, 염불진언과 일종식 등을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실천했으니, 가히 정토 수행자로서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새로나온 책

매 문구 마지막엔 사구게송 붙여



반야심경주해
하도전 주
김호귀 역
중도 펴냄
1만 5천원

〈반야심경주해〉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반야심경〉에 대해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살던 하도전(何道全 1319-1399)이 주해한 책이다. 이번에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인 김호귀 박사의 번역으로 중도출판사서 출판되었다.

낱낱의 문구마다 그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불교를 비롯한 유교와 도교 기타에서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 부연 설명을 가하였다. 그리고 매 문구마다 마지막에는 사구로 된 게송을 붙였다. 그런데 경문의 63문구에 대한 해석은 한자로 번역된 용어에 따른 해석으로서 범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 '바라밀다' 의 경우 '바라' 와 '밀다' 를 나누어 해석한다든가, '심' 을 심장이 아닌 마음으로 해석하는 등 이와 같은 해석의 경향은 명대 이후가 되면 두드러지게 출현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경문에 대한 학술적인 이해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반야심경주해〉가 지닌 가치는 불교를 불교의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고 삼교에 드러내놓고 해석함으로써 불교가 지닌 교리의 우월성을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의 불자나 불자가 아닌 사람을 막론하고 식자층에서 어떻게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방편혜와 실혜의 이해중심 전개



유마경의소
길장 작
김호귀 역
중도 펴냄
3만 2천원

대승경전으로서 출재가를 자유자재하게 넘나들면서 사부대중에게 설법을 펼친 〈유마힐소설경〉에 대한 길장의 주석서 〈유마경의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인 김호귀 박사의 번역으로 도서출판 중도서 출판됐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유마경〉은 비유와 역설의 수사학을 통해 대승불법의 도리를 펼치면서 불교의 수행에 대한 지침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국의 선종에서는 보리달마로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었고, 초기선종의 시대부터 선종의 문헌에서도 어떤 경전보다도 빈번하게 인용돼왔고, 현재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읽히고 있는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본 〈유마경의소〉는 경전의 원문에 대한 낱낱의 대목마다 주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전개돼 있어서 길장의 학문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편혜와 실혜의 이혜(二慧)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한편 길장은 〈유마경의소〉에 앞서 〈정명현론〉의 저술을 통해 〈유마경〉의 대의를 비롯해 경전 전체의 구성과 의의 등에 대해 저술해 당시에도 사부대중이 〈유마경〉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8년 도서출판 운주사 우수도서 선정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 저/신국판/416쪽/값 22,000원
소유가 인간 삶에서 지니는 의미와 역할, 소유의 본질과 전개 등에 대해 초기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 저/신국판/536쪽/값 27,000원
중국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송대의 시가詩歌를, 선종의 관점에서 회통과 융합이란 주제로 치밀하게 연구한 역작!

다문화 사회와 철학
이정은 · 이병욱 · 정창호 저/264쪽/값 13,000원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성찰하였다!

참여와 명상, 그 하나됨을 위한 여정
이정배 외 저/신국판/256쪽/값 13,000원
사회참여와 개인의 내적 성장(명상)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표적 종교의 전문가들이 이 둘의 상관관계와 공존 가능성을 성찰한 책.

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삼계교 연구
수당시대에 선종, 정토종 등 불교종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00여 년 간 영향을 끼친 삼계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총 정리한 역작!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값 35,000원





붓다와 프로이트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양자의 상호융합의 길을 모색한다.
마크 엡스타인 저/윤희조 · 윤현주 역/
33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중생이 보살을 찾아가는 시간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전시품 교체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 주제로 회화 등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월 22일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했다.

우리나라 불교회화의 흐름과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화를 전시하고 있는 불교회화실의 이번 전시는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을 주제로 불교회화와 경전, 조각 등을 선보인다.

보살은 불교에서만 사용된 독자적인 개념으로,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등에서도 보살이라는 용어가 보이지만 보살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그 내용이 풍성해진 것은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의미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自利),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자(利他)'이다. 관음, 지장, 문수, 보현 등 여러 보살 대부분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미래불인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세상에 머물며 중생구제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음보살은 보타락산에 머물면서 고난에 빠지거나 소망이 있는 중생이 그 명호를 부르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소리를 들어 고난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한다.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대중의 신앙이었던 보살로, 대중은 비단이나 종이뿐만 아니라 거울에도 관음보살의 모습을 새겼다. 이번 전시에서 영상과 함께 전시되는 '관음보살을 새긴 거울(고려 동제)'은 작지만 관음신앙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 거울에는 쏟아지는 비를 만나거나, 험상궂은 도적을 만나는 장면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음보살이 담겨져 있다. 마음으로 관음보살의 존귀한 형상을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 마침내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에 관음보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상을 통해 거울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 조선 1730, 보물 1204호


'관세음보살을 새긴 거울', 고려, 동제

또한 관음보살과 관련된 보물 2점도 함께 전시된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보물 제1204호)'은 18세기 대표 화승 중 하나인 의겸이 그린 불화로 고난에서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관음보살과 보살이 사는 정토를 그리고 있다.

푸른 쪽빛에 찬란한 금빛으로 관음보살과 재난 구제 장면이 그려진 '법화경 변상도(보물 제269-4호)'는 조선 초기 사경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현실의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보살이라면,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로 서원한 보살이다. 1673년 그려진 '지장보살과 시왕'은 드물게 남아있는 17세기 불화로, 보존처리를 거쳐 선보인다. 승려 모습을 한 지장보살, 그를 따르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 지옥을 다스리는 열 명의 왕과 동자를 그리고 있다. 지장보살이 지옥에서의 중생구원을 서원하게 된 연유가 담긴 '지장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도 함께 전시된다.


'지장보살과 시왕', 조선 1673

이번 전시에는 지옥과 관련된 회화와 목조공예품도 함께 전시된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죽은 뒤 3일째 되는 날부터 진광대왕을 시작으로 마지막 왕인 오도전륜대왕까지 생전에 지은 죄업에 따라 10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과 각 왕이 다스리는 지옥이 그려진 '시왕도'를 소개한다. '시왕도'에서 중생을 위해 지옥문 밖에 다다른 지장보살을 만날 수 있다. 죽은 자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자',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의 심판에서 만나게 되는 '죄를 비추는 거울' 같은 불교공예품은 지옥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밖에도 섬세한 금빛용으로 장식된 법의를 입고 여덟 보살에게 둘러싸인 '극락정토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 관음보살에게 기원하여 받는 점괘 내용을 정리한 '관음보살에게 점괘를 받는 점술서'를 비롯해 두 보살과 관련된 22점이 전시된다. 현세와 내세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정기적인 전시품 교체를 통해 소장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불교회화실의 '주제가 있는 전시'는 불교회화와 새롭게 만나는 장으로, 이번 전시는 중생이 보살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02)2077-9000.

L·M·B싱어즈 찬불가 6집 '법회 의식곡' 출반



창작과 공연을 통해 찬불가를 전파해 온 엘엠비싱어즈가 6번째 앨범<사진>인 '법회 의식곡'을 발표했다.

이번 '법회 의식곡' 음반에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의식곡들을 법회 현장(사찰, 포교당, 군법당, 교도소, 경찰서 관공서 등)의 쓰임에 맞게 정리했으며, 엘엠비싱어즈의 창작 찬불가를 덧붙여 불보살 찬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그동안 법회가 진행되는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의식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회 주체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부르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문 합창단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회 진행 순서대로 음악을 구성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법회 의식곡' 음반 하나만 있어도 모든 법회를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총 23곡이 수록된 '법회 의식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법회 의식곡'이다. 한국불교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의식곡 가운데 법회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부처님께 바칩니다'를 따라 부르기 좋도록 새롭게 편곡했다. 그리고 엘엠비싱어즈의 창작 찬불가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마음의 소리', '부처님 마음일세', '부처님 법 안에서' 등 3곡을 함께 수록해 감상용 음반의 의미를 더했다.

두 번째는 '사회 멘트가 있는 의식곡'이다. 법회 때 개회 멘트에서부터 삼귀의, 보현행원, 발원문,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그리고 폐회 멘트에 이르기까지 법회 순서에 맞게 의식곡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어느 장소에서나 이 음반 하나만 있으면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합창단이 없는 소규모 사찰이나 군부대, 일반 법회, 관공서 등에서 그 쓰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피아노 반주(MR)'다. 쓰임이 많은 법회 의식곡,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 '사홍서원', '산회가', '부처님께 바칩니다'의 반주음악(MR)을 수록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엘엠비싱어즈는 그동안 한국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 의미를 되살려 올해 엘엠비싱어즈는 찬불가 창작과 함께 크고 작은 공연을 펼친다. 특히 창단 20주년 기념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아우르는 엘엠비싱어즈만의 특별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대한 불교음악인을 조명하는 'Buddhist Hymn Maestro'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상원사 고양이상 캐릭터 이름 공모

접수마감 2월 22일까지
발표 3월 3일 월정사 홈피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대산 상원사 경내 고양이상의 캐릭터 이름을 공모한다. 문수전 계단 옆에 세워진 고양이상은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를 형상화 한 것으로 전해온다. 상원사를 찾은 세조가 불전에 들어가려고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가 세조의 옷자락을 물어 끌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고양이의 행동이 몇 차례 반복되자 세조는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껴 불전을 수색케 했고, 불단 밑에 숨어있던 자객이 발각됐다. 세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기리기 위해 고양이상을 세웠다고 한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이며, 월정사의 공모 양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yeshyun74@gmail.com) 로 접수한다. 당선작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3월 3일 월정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박재완 기자


상원사 고양이상.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1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2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3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4:21 PM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19.01.16 수요일
소중한 생명에게는 푸른 새싹이 자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을,
소외된 임산부에게는 소중한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화장실서 출산 후 아이 방치..숨 거두자 검은 봉투에 넣어 유기 2018년 11월 23일 | 전북 익산
건물 뒤편 공터에서 미숙아로 보이는 영아 시신이 발견 2018년 8월 28일 | 광주 광산구
냉장고에서 영아 시체 2구 발견 2018년 | 부산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지광국사탑, 1백년 前 '한글묵서' 첫 확인

국립문화재硏, 지광국사탑 도록 · 보고서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1년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
탑신에 묵서… "한글 용례 자료"
보존처리 · 조사연구 등도 수록돼
"석조문화재 원형복원 연구 성과"



지광국사탑의 유리건판 사진들로, 모두 1911년 촬영됐다. 사진 가장 왼쪽은 명동 무라카미 병원의 지광국사탑의 모습. 사진 가운데와 오른쪽은 탑신 남쪽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100년 전 한글 묵서가 확인된다.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히는 지광국사탑의 복원 · 보존 과정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도록과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광국사탑에 한글 묵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에 대한 보존처리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와 역사적 의의를 사진과 함께 실은 도록을 발간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시대 국사(國師)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광국사탑은 한국 근현대사를 거치며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국권 침탈 직후 1911년 일본인에 의해 국외로 반출됐다가 반환됐다. 한국전쟁 당시 포탄의 피해를 보았고, 10여 차례의 해체와 이건(移建)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일부 상실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부터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탑을 해체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과 보고서는 보존과 조사연구에 대한 과정을 기록한 결과물들이다.

도록 〈고려(高麗) 미(美) · 상(想), '지광국사탑'을 보다〉는 장엄한 조각과 문양을 통해 밝혀낸 지광국사탑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상징 등을 수록했다. 도록 속에는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 이후, 제대로 촬영되지 못했던 탑의 세부와 해체된 부재들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촬영한 사진들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도록에는 한글이 적힌 지광국사탑의 묵서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탑 복원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몇 장의 유리건판(필름 이전에 사용된 사진 저장물)을 참고하던 중 발견한 이 한글 묵서에는 1911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인 '긔묘, 여긔서' 등이 남아 있다. 이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한글의 용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묵서의 판독과 자문을 맡은 최연식 동국대 교수와 허재영 단국대 교수는 "묵서로 기록된 간지와 연호를 살펴보면, 1879년(긔묘)부터 1905년(광무9년)까지 기록된 것으로, 원주 법천사 폐사지를 지나던 근방(원주 · 여주 · 충주)의 인물들이 지광국사탑에 묵서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묵서들은 지광국사탑이 원주 법천사지에서 반출되기 전인 1911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며, 근대 한글의 용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Ⅱ〉는 2017년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존처리 · 조사연구 · 학술연구 성과 등을 수록했다. 1957년 수리에 사용된 시멘트에 의한 손상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석했고, 시멘트 제거 이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D 스캔 ·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형제작 등 3D 콘텐츠로 구축한 자료도 담았다.

또한, 지광국사탑 보존 · 복원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무기질 조성물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새롭게 개발한 무기질 조성물은 탑의 결실부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기존 결합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유기질 성질을 혼합한 것으로 특허 추진을 계획 중"이라며 "지광국사탑 보존을 위한 과학적 보존처리와 연구 성과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와 도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

문화재청 2월 28일까지 접수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이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조상기)는 "2월 28일까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굴조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문화재청의 학술발굴조사 사업 중 하나다.

올해 공모는 △주요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 ·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보존 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 △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조사기관에게는 최대 1억 7,000만원의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 공개 설명회를 통해 발굴성과를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42)524-9262

신성민 기자

디지털 인문학, 불교에 어떻게 적용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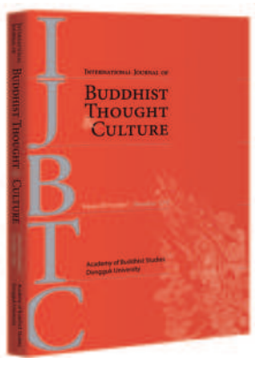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28권 2호 발행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가 어떻게 접목돼 연구되고 있는 지를 살필 수 있는 국제 학술지가 발간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28권, 2호를 지난해 연말 발간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국내 · 국제 주요 불교학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 IJBTC의 이번 호에는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Digital Humanities and Buddhism)'를 주제로 특집 논문을 비롯해 연구논문, 서평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하버드대 · 템플대 · 뉴욕주립대 · 시드니대 · 뮌헨대 · 하나조노대 소속 대표연구자로서 국제적 다양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이다.

특집인 '디지털 인문학과 불교'에는 △도널드 스털젼(하버드대)의 '중국불교문헌의 문자인식(OCR)' △마르쿠스 빙겐하이머(미국 템플대)의 '중국불교사에서 누가 중심(central)인가- 사회관계망적 접근' △박보람(동국대)의 '불교 화엄 문헌 분석에서 N-grams과 SVM 활용 연구' △모로 시케키(하나조노대)의 '현존하지 않는 불교 사원의 3DCG 시각화에 대한 고찰' 등 4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세계 유명 대학 불교학자들 참여
디지털 기술 · 불교학 적용 살펴
기고 연구논문 · 서평 등도 '눈길'

연구논문으로는 △G.A.소마라뜨네(홍콩대)의 '출생 · 노화 · 죽음: 초기불교의 3가지 실존적 고통' △호 처우휘(시드니대)의 '문수보살의 도상학적 변천과 의례의 정체성' △샤오 유에(붓쿄대)의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淸淨平等覺經)의 24서원에 대한 비판적 역주' △조지 할키아스(홍콩태)의 '키옌테 노르부의 영화 '여행자와 마술사'의 불교적 요소' 등이 수록됐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불교학 연구서를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론한 2편의 서평들도 살펴볼만 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IJBTC〉에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문학 연구가 활발해진 요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불교를 어떻게 시각화 할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특집 논문들이 게재됐다"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불교 연구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JBTC〉는 국내 유일 영문 불교학 전문지로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 브링엄영대 교수가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다.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며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연구' 제18집 논문 공모

동국대 경주 오는 31일 마감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성철)이 발행하는 〈불교문화연구〉가 논문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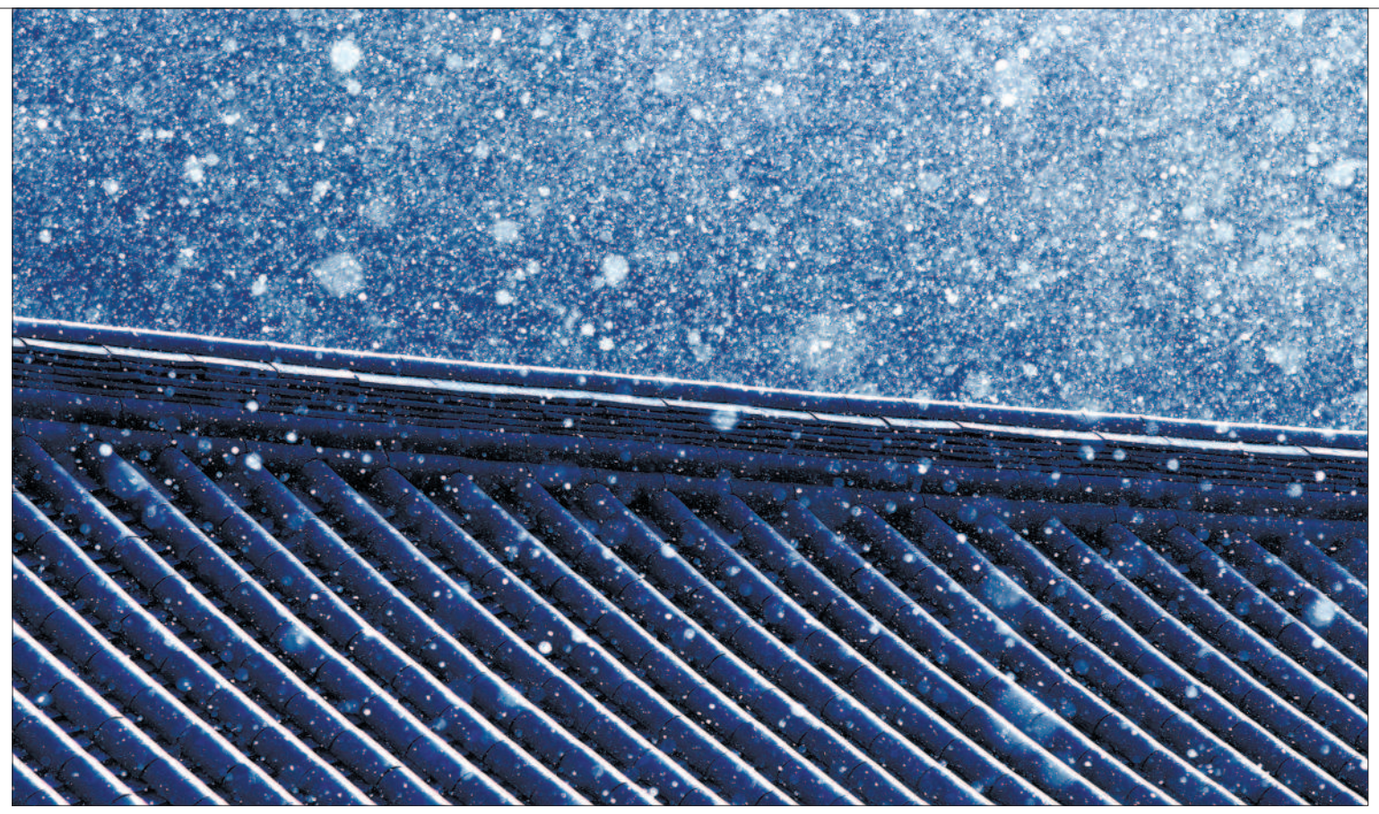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은 매년 1회 발간하는 일반학술지 〈불교문화연구〉 제18집 게재 논문을 오는 1월 31일까지 공모한다.

불교 관련 학술논문의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에 따라 각주와 참고문헌을 작성하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150매 분량으로 투고자 이름, 소속, 휴대전화를 명기해 메일(bulmunyeon@dongguk.ac.kr)로 응모 가능하다. (054)770-2506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나 없는 세상에 남게 될 때
나의 이름은
누군가의 말(言) 속에 남기보다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기보다는
누군가의 발자국 위에 남고 싶다
눈 내리는 날,
산사로 가는 흰 발자국에 한 번
기도하는 맑은 발자국에 한 번
풍경소리에 길 잃은 발자국에 한 번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㉖ 김일 선수 (下)

받은 도움 善行으로 갚고 떠난 '박치기왕'

1994년 10월,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에 갈색 진돗개 동상이 세워졌다. 그 옆에는 김일 선수 공덕비도 함께였다. 일본에서 외로운 투병생활을 하던 김일 선수가 한국으로 귀국한지 9개월 만의 일이었다. "고향에 진돗개 동상을 세우고 싶다"는 김 선수의 소원이 이뤄진 그 순간, 나는 마치 내 소원을 이룬 것처럼 기뻤다.

그로부터 1년 전, 나는 박치기왕의 딱한 사연을 우연히 듣고 무작정 후쿠오카로 떠났다. 그때 김일 선수는 지인들의 원조가 점점 끊어지고 있었다. 낡고 작은 서민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운명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와의 인연으로 김 선수의 남은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진돗개에 얽힌 김 선수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든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다짐은 했지만, 사실 나는 막막한 심정이었다. 나는 김 선수에게 비행기 표 값을 주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선수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 나의 경제적인 형편도 문제였지만, 김 선수를 한국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마땅한 거처가 없었다. 김 선수의 몸 상태는 병원에 입원해 매일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 비싼 치료비는 더욱 감당할 길이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친하게 지내던 모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 김일 선수의 근황과 딱한 사연을 신문에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모 기자는 특종감이라며 내 제보를 반겼다. 왕년의 박치기왕의 소식은 대서특필됐다.

나는 다시 한 번 언론의 힘을 실감했다. 국민들은 김일 선수의 기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은 예전 모습을 잃어버린 박치기왕 사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에서 곧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퍼져갔다. '우리의 영웅이 이럴 수가….' 대국민적 관심은 '왕년의 박치기왕을 도웁시다'로 일파만파 번졌다.

김 선수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이는 사형수였다. 사형수 차준석 씨는 교화활동 중 만난 사이였다. 차 씨는 김 선수 소식을 듣자마자 영치금으로 모은 백만 원을 전해달라고 했다. 차 씨는 차마 받기를 망설이는 나에게 "나도 힘들지만 다른 힘든 사람을 돕게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나는 눈물겨운 영치금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갔다. 김 선수에게 차 씨의 성금을 전하고 돌아오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 선수를 후원하고 그의 귀국을 돕겠다는 이가 나타났다. 김 선수의 열성팬이라는 그 후원자는 박준영 씨였다. 박 씨는 서울 을지병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다. 박준영 이사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김 선수가 평생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락해왔다.

후쿠오카 방문 3번째 만에, 김일 선수는 귀국했다. 1994년 1월 13일 한국으로 돌아온 김 선수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됐다. 13년간 특실서 요양하며 신체 ·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다른 이를 돕는 일로 각계에서 보내준 성금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했다.



부산 자비사 주최로 열린 자선전시회 수익금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김일 선수(왼쪽 첫 번째)와 삼중 스님(왼쪽 두 번째). 김 선수는 영치금으로 자신을 도운 사형수 차준석 씨의 자녀에게 받은 성금에 50만원을 더해 되돌려줬다.

진돗개동상 사연 특종 보도돼
'김일 돕기 운동' 각계 확산
사형수 영치금 등 성금 답지
병원 이사장 후원으로 귀국
13년 요양하며 자선활동 활발

그 즈음 나는 주지로 지내던 자비사 주최로 '김일 선수 돕기 자선전시회'를 부산서 일주일 간 열고, 모인 전시 수익금을 김 선수에게 전달했다. 성금을 받자마자 김 선수가 한 말은 뜻밖이었다.

"사형수로서 죽기 전 마지막 선행을 하고 싶다며 절 도운 차준석 씨가 대구교도소 수감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돈으로 보내준 돈인지 알면서도 염치불구하고 도움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젠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귀국한 지 4일차였다. 김 선수는 주치의의 적극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부산에 왔다. 전시회에 참석한 차 씨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김 선수는 차 씨가 보내줬던 금액에 50만원을 더해 차 씨의 딸에게 성금을 되돌려줬다. 소녀가장 등 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그 해 4월, 김 선수는 병상에서 정부가 수여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선행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선수 시절, 김 선수는 전 재산 500만원을 털어 양수기 50대를 샀고,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 농촌에 기부했다. 또 은퇴 후에는 김일장학회를 만들었다. 김일장학금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도왔다.

금산면은 실제로 면 단위 최초로 전기가 상용화된 지역이다. 이 일 역시 김 선수의 역할이 컸다. 김 선수는 전성기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고향마을에 전기를 놓아달라고 직접 부탁했다고 한다. 진돗개 동상과 함께 세워진 김일 공덕비는 이를 기리기 위함이다. 공덕비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애쓴 김 선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사람들은 또 다른 김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다. 지인의 후원이 끊어져 언제 병원에서 쫓겨날 지 불안해하던 예전 삶과는 전혀 달랐다. 김 선수는 그동안의 일들을 회고하며 일간지에 글을 연재했다. 자서전도 출간하게 됐다.

김 선수의 자서전이 번역돼 일본 유명출판사서 출판을 앞두고 있었다. 〈오오키 킨타로(김일의 일본 이름)-전설의 박치기 왕〉이란 제목으로 출간될 자서전 기념행사 날만 기다리며 들떠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는 나는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쿄서 열릴 출판기념회에 초대하곤 했다.

서울 보덕사 주지 소임을 맡을 때는 사찰 행사에도 종종 참석했었다. 진신사리 봉안식에 왔다간 그에게 이틀 뒤 전화가 왔다.

"스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듯한 목소리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가 왔다. 김 선수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전화였다. 나는 김 선수의 가족과 함께 그의 임종을 지켰다.

2006년 10월 26일, 박치기왕 김일 선수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끝내 김 선수는 그렇게 기대하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세상을 달리했다. 당사자 없이 개최된 행사 당일은 기막히게도 김 선수의 49재 날이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비참한 타지생활을 청산한 김 선수는 왕성한 자선활동으로 자신이 받은 온정의 손길을 갚고 생을 마감했다. 김 선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임종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운 인연으로 남아있다. 〈끝〉 정리=김지원 기자

